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PREACHING THAT BRINGS HEALING IN A BI-CULTURAL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NTA MARIA FAITH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PAUL CHULHONG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Chi Young Kay

Yea Sun Kim

Seyoon Kim

April 4, 2006

**PREACHING THAT BRINGS HEALING IN A BI-
CULTURAL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NTA MARIA FAITH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PAUL CHULHONG PARK

APRIL 2006

이중 문화권 교회에서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계지영 교수

박 철 홍

2006년 4월

Abstract

Preaching that Brings Healing in a Bi-cultural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nta Maria Faith Presbyterian Church

Paul Chulhong Park

Doctor of Ministry

200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dissertation presupposes that the congregation living in hurt and Suffering of the Multi-cultural community should be solaced with God's abundant love, developing a closer relationship, and effectively create one person at a time to maintain a balance in the wholly Christian for healing and growing.

The Sermons of Counseling Issues are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sermons in that it approaches the congregation with real-life problems. These real life problems must be delivered effectively to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ho can pertain to these problems with the strength of the word, so that we will provide not only sympathy and discipline but also strength and knowledge to overcome upcoming crisis situations in order for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live healthy lives. The purpose of this sermon is to enforce the necessary counseling topics for the restoration and helping of the congregation's hurt and suffering.

In the first chapter, I plan to discuss the specific topics of motive through the method of research.

In the second chapter, I plan to discuss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sermon for Counseling Issues as well a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is sermon.

In the third chapter, I plan to discuss the old and new testament and the epistles that are present in The Sermons of Counseling Issues.

In the fourth chapter, I will attempt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in cultural postmodernism and the analysis of Faith Korean Church in multi-cultural communities. The specialty of Faith Korean Church in Santa Maria will be

portrayed

In the fifth chapter, I plan to discuss the preparation and organization necessary for the Sermons of Counseling Issues as well as the skill of delivering this sermon.

In the sixth chapter, I plan to show a survey or questionnaire on the opinions of the congregation on this topic.

In the last chapter, I plan to give a resolution of the sermon of Counseling Issues.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will have effective means of healing in the congregation through sermons of Counseling Issues. Like Faith Korean Church of Santa Maria, our future churches desperately need sermon of Counseling Issues. These studies will help future broken families serving multi-cultural churches through sermons of Counseling Issues.

Theological Mentors: Chi Young Kay, Ph. D.

Yea Sun Eun Kim, Ph.D.

Seyoon Kim, Ph.D.

현 사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늘 함께 울고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산타마리아 믿음 장로교인 들에게 바칩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주제를 선정할 동기	7
제 2 절 연구의 목표와 중요성	8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	11
제 2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해	12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정의	13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특징	14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적	17
제 4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기능	21
제 3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26
제 1 절 구약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26
제 2 절 신약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29
제 3 절 서신 서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32
제 4 장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의 이해와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특성	35
제 1 절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와 교회 공동체	35
제 2 절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드러나는 설교의 위기	40
제 3 절 집단으로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이해	45
제 4 절 이증문화권으로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특성	51
제 5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준비의 원리들과 전달	57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준비와 구성	59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위한 주제선정과 본문선택	68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서론과 결론	75
제 4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예화사용과 적용	81
제 5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전달기술	90
제 6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평가	98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관적인 평가방법	98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객관적인 평가방법	100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종합평가	102
제 7 장 결론	116
부록	121
참고문헌	126
Vita	132

제 1 장 서 론

폴 히버트는 그의 책 *선교와 문화인류학*에서 “이중 문화적 공동체는 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인 역할 위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한 문화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시작된다.”¹⁾ 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이중 문화는 생과정에 있는 문화여서 시간적 깊이가 얕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을 가져올만한 창조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일어나는 독특한 문제들이 이 이중 문화권 안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²⁾고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이중 문화권이란 이민자로서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중 문화권은 좀 더 좁은 관점으로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외국인들과 결혼하여 미국 문화권의 삶의 방식과 한국문화권의 삶의 방식사이에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한국인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런 이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버트가 주장하였듯이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열등감과 갈등, 그리고 피해의식 같은 독특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특히 부부간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것이 이중 문화권에 속한 교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별히 이중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느 쪽에도 충분히 동화되지 못하고 다른 세계와의 경

1)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하 외 3인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6), 330.

2) Ibid, 342.

계선 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³⁾ 또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소외로 인하여 자기 자아상에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는 그의 책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상처 입은 자아상은 최소한 아래와 같이 치료 받아야 할 아홉 가지 증상⁴⁾이 있다고 소개한다.

1.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싫어한다.
2.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싫어한다.
3.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
4. 자아상의 문제를 지닌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 성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5.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기분전환 방법을 시도한다.
6.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저주한다.
7.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에 급급하거나 성취 지향적이다.
8. 관심을 사기위한 필사적인 시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9. 많은 사람들은 간단히 자신을 포기한다.

이처럼 이증 문화권에 관계된 교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행동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충성되고 인정받던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섭섭함을 느끼게 되면 단체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필자는 이런 행동 특징 속에는 소외나 자기 정체감의 상실로 인한 상처들이 내제되어 있다가 때로 사소한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이증 문화권 교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치유 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⁵⁾ 또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⁶⁾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형성하시고 돌보셨다.⁷⁾ 우

³⁾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346.

⁴⁾ Charles, H. Craft,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운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98-220.

⁵⁾ 엡1:4; 롬1:5.

⁶⁾ 창1:26.

⁷⁾ 시139:13-15.

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 졌을 때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⁸⁾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⁹⁾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셨다.¹⁰⁾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¹¹⁾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 주셨다.¹²⁾ 그러므로 이종 문화권 속에서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과 자아상을 높이는 것은 치유사역에서나 목회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이종 문화권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 회복과 치유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목회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Seward Hiltner는 그의 저서 *Pastoral Theology* 에서 목회 신학적 원리를 목양(Shepherding)에서 찾았다. 그는 목양에서 두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교회가 목사들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 존재하는 교회 실천의 원리로 신자 개개인의 지도는 물론 교육과 교회의 건설, 행정 등 전반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로 도움을 요하는 가장 약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¹³⁾ 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보셨듯이, 늘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종 문화권 성도들이 바로 목회의 주체가 되고 설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목양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하면 이종 문화권에 사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이런 목적들을 이루어 보고자 연구한 것이다.

교회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심리 속에는 교회가 자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마음 안에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심리학

8) 롬5:8.

9) 요일3:1-2; 요1:12.

10) 요15:15-16.

11) 롬8:14-17.

12) 벧전2:9.

13)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8), 13.

이 아닌, 성경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 줄때, 즉 상처 입은 마음을 공감해 줄때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끼게 되고, 그와 함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유능한 설교자는 말씀과 인간의 삶을 잘 요리해서 청중에게 대접하는 설교자일 것이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설교자는 교인들과의 깊은 만남에서 얻은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 보다는 교인들의 총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응하여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교인들의 삶의 현장의 소리는 결국 교인들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상담을 통해서 청중의 소리를 듣고 청중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가능해 진다. 이처럼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는 설교자와 청중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치유되는 체험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이중 문화권 속에서 문화적 충격과 소외와 갈등을 겪으며,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중 문화권 성도들을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좀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양육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문화권 교인들의 삶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충격, 장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정체감 상실, 소외와 열등감, 피해 의식 같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주는 동맥이므로 대화가 단절되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¹⁵⁾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계란 대화를 통하여 개선되고 치유되는데 대화의 부족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부분이다. 구현정은 그의 책 *대화의 기쁨*에서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하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활동

14)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0), 169에서 재인용.

15) 노만 라이트, *제리 올리버 공저,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9), 201.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¹⁶⁾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들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성격들이 급하고 극단적이라서 일단 문제가 생기고 나면 수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원 창간 35주년 특별기획으로 주부들의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중 24.8 퍼센트는 부부가 하루에 30분 정도의 대화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하였고 대화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7 퍼센트나 되었다. 한국 기독교 연합신문 96년 4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교인들 중에 부부의 평균 대화가 불과 30분이 되지 못 한다¹⁷⁾는 보고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 준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고 서로를 알고자 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또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연결점을 찾고자 노력하다가 연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며 서로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관계를 종료하게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부의 문제는 날로 그 위험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급증하는 이혼율, 처자 불법유기, 아내구타, 청소년 범죄, 그리고 부부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태, 고통, 불행 등은 결혼생활이 너무나도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성경에 보면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가정이란 인간이 삶을 최초로 시작하는 곳이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장한 후에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원천지가 된다. 더 나아가서 가정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곳이며,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확인하고 실현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 학습의 통로이며, 생활환경의 가장 본질적인 농축 형식이다.¹⁹⁾ 이처럼 가정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집단으로서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그 인격이 형성되는 최초의 사회 환경이며, 사회의 영원한 학교이며, 인간의 영원한 보금자리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이다.²⁰⁾ 현대사회에서는 집(House)은 있으나 가정(Home)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혼, 별거, 동거, 가출, 비행과 같은 가족해체가 확대되고 있다. 가족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의 갈등과 부조화를 크게 조장하고 있다.²¹⁾ 빌리그레함은 “가정은 안전한 휴식처요, 기본을

16) 구현정, *대화의 기법* (서울: 한국 문화사, 1997), 25.

17) 김가연 편집, *제 5 가정 문제 자료집* (서울: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1997), 221.

18) Howard, J. Clinebell, *목회상담신문*,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371.

19)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4), 84.

20) 이규환,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1984), 64.

습득하는 학교이며, 하나님께서 공경 받는 교회이며, 정과 기쁨이 오가는 처소다.”²¹⁾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 속에 처해 있다. 이제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사는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로 회복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건강해 질려면 인격적이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나누는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들이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중 문화권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회중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선포식 말씀으로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였다. 필자는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설교 방법 중의 하나였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문화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설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한 집단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여러 설교 방법 중에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본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주제를 선정한 동기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부촌인 산타 바바라와 셴 루이스 오피스포 사이에 있는 산타마리아 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스페니쉬 밀접지역으로 딸기와 브로컬리등 야채 재배를 주로 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곳에서 약 30분 이내에 벤덴버그라고 하는 미국 공군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곳은 때로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등

²¹⁾ 이원규 지음,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2), 55.

²²⁾ 박윤의 엮음, *기독교 명언집* (서울: 국민일보사, 1993), 166.

제법 규모가 큰 공군부대이다. 이런 지역에 소재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 교회는 매 주 일 평균 출석 인원이 장년이 80여명,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70여명쯤 되는 교회이다. 이 교회의 약 반은 이중 문화권의 가정들이고, 나머지 가정들도 이런 이중 문화권 가정들과 형제들이거나 부모 혹은 친척들인 분들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중 문화권 가정이 많은 산타마리아 믿음 장로교회에서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나 청중사이에 공감대를 형성되지 못하게 한다.

필자는 이곳에 부임한지 삼 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늘 깔끔하고 세련된 설교만을 고집하였다. 그런데 이 년이 지나면서 이곳을 선교지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지역의 이중문화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연구하였다. 그러던 중에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을 상담하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이 지역교회에 접목한다면 훨씬 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설교의 틀을 바꾸게 되었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새로운 분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생소한 분야는 아니다. 존 스토틀은 그의 책 *현대교회와 설교* 에서 설교의 종류를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²³⁾ 첫째, 주제의 성격에 따라 성경적, 윤리적, 경건적, 교리적, 사회적 또는 복음 전도적 설교로 구별하였다. 둘째, 구성방식에 따라 직접적인 해설, 점진적인 논증, 세분된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방식으로 구별하였다. 셋째, 심리학적 방법에 따라 구별 하였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기묘자(Wonderful)요 모사로, 즉 상담자(Counselor)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회중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서 시작하여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회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기능과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 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이다.²⁴⁾ 필자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²³⁾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2), 81.

²⁴⁾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천 서적, 1995), 19-20.

관한 설교를 통하여 상담의 원리를 설교에 적용함으로써 전인구원, 전인 치료, 그리고 전인 성장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와 중요성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는 창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이종 문화권에 소속된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필자가 부임해 오기 몇 년 전에는 이 교회가 들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젊은 층의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 함께 교회를 섬기던 한 부목사와 힘을 모아서 다른 교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픔도 겪었다. 또한 이 교회 구성원들 중 이종 문화권의 배경이 아닌 교인들의 대부분은 토요일과 주일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어서 예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와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나 기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배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시는 분도 있었고, 예배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다섯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게 만들 수 있을 까였다. 어느 설교자이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²⁵⁾

둘째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설교가 교인들의 삶과 상관이 없게 되면 자연히 관심이 없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 설교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설교가 청중에게 들려졌다면 그 설교는 일단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본문들을 선택하여 관심을 끌고 회중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하나

²⁵⁾ 찰스 크랩,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김동화 역 (서울: IVP, 1991), 25.

님의 말씀을 회중들의 삶의 현장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의심하는 이에게는 확신을, 불안한 이에게는 평안을, 상처받은 이에게는 치유를, 죄책감이 있는 이에게는 용서의 확신을 심어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 관한 설교는 결국 교인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일반 교인들과 다른 종교적이거나 거룩한 삶 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의 삶에 적용하여 회중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상담과 설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향하는 목적도 다르다.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로 더불어 서로간의 신뢰의 기초위에서 대화를 통하여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진단하고 찾아내어 어려움을 풀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설교는 예배시간에 집단적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회중들로부터 전혀 방해받지 않는 설교시간은 어쩌면 제일 효과적인 말씀을 통한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회중들의 아픔과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는 어떻게 하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심리학의 건전한 제안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주객이 전도되어 설교시간인지 상담시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말씀의 효과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상담과 심리학의 여러 이론과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심리학의 견해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란 회중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님

의 말씀의 적용에 상담학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듣는 산타마리아 믿음 장로교회의 회중들의 분포와 그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처리되지 못한 상처 및 아픔들을 설교를 통해서 치유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여 성경본문과 교리 중심으로 설교하였던 설교들과 최근에 상담기법을 사용하여 설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 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종 문화권 성도들에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분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을 바탕으로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사이에 서로 배려하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의사소통의 회복을 통해 그 관계들을 개선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일 설교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면서 상담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여서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이 먼저는 필자가 섬기는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를 돕고, 그 후에는 특수 상황 가운데 미주에 흩어져 있는 이종문화권 가정들과 교회들을 섬기고자 한다.

제 2 장

상답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해

오늘날 우리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쿠펜베르그에 의해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 지난 500년 동안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인쇄된 지면, 즉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더 이상 문자나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 이후시대, 즉 멀티미디어 문화와 영상매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²⁶⁾ 멀티미디어 등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은 전통적인 교회와 신학이 지니는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도 주도하고 있다.²⁷⁾

설교는 강의와는 달리 성취되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설교를 통하여 청중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다시 말하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청중들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에도 변화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매체의 변화와 그로 인한 청중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교회가 과연 영향력 있게 말씀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²⁸⁾ 그 중에서도 멀티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설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즉,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적인 청중을 위해서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가 보다 효과적이고 호소력이 있기 위해서 눈에 그려볼 수 있는

26)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59.

27) 최인식,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0.

28)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70.

다채롭고 풍요로운 언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²⁹⁾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려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장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과 목적과 그리고 그 기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정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란 집단 상담의 장점을 살려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함으로 상담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라고 말한다. 특별히 이 설교는 회중들의 삶에서 겪는 의심과 염려, 불안과 실패, 좌절과 외로움, 온갖 문제와 갈등, 우울과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그의 저서 *목회적 상담과 돌봄* 이라는 책에서 목회와 상담의 목표는 자기-이웃-사회의 전체성의 개발이라고 말하였다.³⁰⁾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언제나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차원을 지나서 복음에 나타난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현대의 복잡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설교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도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아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알고, 해결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효과적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²⁹⁾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62.

³⁰⁾ Howard, J.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57.

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성도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한다면 듣는 청중들이 설교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 날 것이다.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특징

미국에서 지난 1930년대와 1940년대 중반까지 상처와 절망 속에 헤매며 고통 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위로 하던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이다. 그는 설교는 상담 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설교자체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목회상담의 행위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의 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강해설교와 달리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래서 이 설교에는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대면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의문을 풀어 주며 가장 숭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확증시키면서 동정적이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협력의 태도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설교는 그 자체가 청중을 상대로 하는 집단 상담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설교를 통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과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³¹⁾ 이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현대인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설교의 형태가 바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이다.

한편, 콜린스는 설교를 “대중적인 상담”이라고 표현하였고, 포스딕은 “집단 상담”이라고 정의 하였다. 설교란 성도들이 집단으로 모여 개인의 성숙과 말씀을 통한 치료,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이기에 설교가 집단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대인관계에서나 자신의 문제의 현실적인 이해부족으로 파생된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한 집단 상담은 개인의 발달을 돕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³²⁾ 좀 더 쉽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설명한다면 이 형태의 설교는 신구약 성경 66권

31) 도날드 캡스,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16-17.

32) 전영복, 기독교 상담학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1), 343.

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의 상담적인 필요에 적용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청각적 언어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의견으로 개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상담자의 많은 노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상담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과 특히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자존감을 높여 준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다. 또한 집단 상담은 내담자와 같은 회중들에게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해준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개진하는 내담자는 한 명이지만 내담자의 문제를 듣는 사람인 회중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집단 상담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 강조하는 바는 치료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의 함양과 성장과 적응에 있다.³³⁾ 따라서 집단 상담은 그 기능에 있어서 치료적 차원 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³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우선 이 설교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설교 말씀의 도입이나 과정보다는 그 말씀의 적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모인 회중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잘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회중들의 삶의 현장들을 잘 알아야 하고 회중들의 삶의 형태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중들이 삶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개인 상담이나 심방이나 설문지 조사 등으로 부지런히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설교의 적용 부분에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적은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상담의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조화시켜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는데 있다. 설교자가 먼저 회중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목표들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상담기법을 도입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33)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17.

34) 오성춘, "치유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기독교 사상*, 1980년 29권 1호, 57.

하는지를 연구하고 결정한다. 그 다음, 그 해결의 실마리들을 바탕으로 실제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성도들을 말씀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담기법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언제나 회중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하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담기법들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조화롭게 접목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개인에게 이야기 하는 듯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 상담의 가치는 개인의 특별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있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로 설교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현재에 겪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설교자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는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복음의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³⁵⁾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바른 적용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아야 하고 오늘 당면한 청중들의 필요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필요나 실제적인 욕구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질수록 더 효과적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될 것이다.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적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에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설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설교의 은사는 성령의 권능이라

³⁵⁾ 도날드 캅스, *목회상담과 설교*, 19-20.

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설교사역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끝이라고 말한다.³⁶⁾ 한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란 전인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³⁷⁾ 따라서 설교자의 임무는 회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회중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 전 생활 영역에 감동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켰고, ³⁸⁾ 설교의 참된 기능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 의식, 즉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전달해 줌으로서 회중의 마음에 진리의 충격을 강하게 주어 그 진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로렌스 크랩은 상담의 목표는 성숙(Maturity)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과 같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책임이며 목적이다.”³⁹⁾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존 스토틀의 *현대교회와 설교*의 4장에 보면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를 설명하면서 설교란 두 세계의 문화적 격리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강조하였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담의 목표나 설교의 목표는 그 내용상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전인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하나님 나라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표란 바로 상담과 설교의 이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형태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전인치유, 전인 성장, 그리고 전인 구원이다. 우선 전인 치유는 정신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상처, 그리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인 성장은 삶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모든 영역에 까지 발전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돕고 격려하는 것이며, 전인 구원은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전 부분에 걸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⁴¹⁾

36) John Piper,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 하십니까?*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5), 17-25.

37) 정근두,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론, 1994), 53.

38) D. M.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7), 82.

39) J. Crabb Lawrence Jr.,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23.

40)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2), 151-190.

1. 전인 치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 전인치유란 인간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어느 한쪽만 더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중으로 치유되고 기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인치유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인치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나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전인치유된 상태가 악화된다. 따라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의 전인치유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의 치유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말씀을 증거 해야 한다. 다윗은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⁴²⁾ 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⁴³⁾라고 말하였다. 이 상근 목사는 그의 *히브리서 주해서*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어서 사람의 심령을 살리시며 영육을 온전히 분석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주었다.⁴⁴⁾ 사도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⁴⁵⁾고 말하면서 전인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오늘날 성장하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이 교회성장의 비밀이요, 목회자의 바른 자세라고 강조하였다.⁴⁶⁾

41) 김만중, *상담설교*, 26-37.

42) 시19:7-8.

43) 히3:12.

44) 이상근, *히브리서* (서울: 영진 인쇄소, 1976), 210-212.

45) 살전 5:23.

46) 이요한,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 하는가* (서울: 성서 연구사, 1989), 147.

2. 문제 해결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다. 즉,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 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 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 라고 말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신성종 교수는 그의 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에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며 교회 성장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설교가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고 설명하였다.⁴⁷⁾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그 해결과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3. 온전한 사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목회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

⁴⁷⁾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3), 30-38.

혼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⁴⁸⁾고 말하였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며 성도들의 삶의 성장 목표가 되어야 됨은 물론이다. 마태복음에도, “그러므로 하늘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⁴⁹⁾고 말하였고, 에베소서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⁵⁰⁾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J. E. 아담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시킨다.”⁵¹⁾고 설명하였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편중됨이 없이 모두 똑 같이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 주어서 치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후에 성도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치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기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윌리엄 A. 글레비쉬와 찰스 R. 재클이 목회사역의 기능으로 제시한 화해(Reconciling),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그리고 인도(Guiding)⁵²⁾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기능들은 목회상담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능들이다.

1. 화해(Reconciling)의 기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화해의 기능은 먼저 하나님과

48) 딤후 3:16-17.

49) 마 5:48.

50) 엡 4:13.

51) J. E. 아담스, *상담신학* (서울: 기독신보 출판사, 1990), 14.

52) 김상인, *상담심리용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샘가, 2000), 55-56.

의 관계회복을 이루고 그런 다음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중심 과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목회상담의 핵심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화해가 설교의 줄기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6-7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에 대하여 H. C. 류폴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인생의 완전한 방향전환”⁵³⁾으로 주석하였고, G. Rawlinson은 이 부분을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화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⁵⁴⁾로 주석하였다. 또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⁵⁵⁾고 하신 말씀은 화해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⁵⁶⁾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을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화해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위와 같은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화해를 선포하고 있다.

2. 치유(Healing)의 기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치유의 기능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새롭게 해 주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현상과 정신병리 현상,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53) H. C. 류폴드, *반즈 신구약 성경주석 이사야* (서울: 크리스천서적, 1990), 906.

54) G. Rawlinson, *풀짚 주석 이사야 (하)* (대구: 보문출판사, 1979), 489.

55) 요 14:6.

56) 요 15:26.

구체적으로 전인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⁵⁷⁾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아시고 인생의 고통과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의미이다. 다윗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⁵⁸⁾라고 말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⁵⁹⁾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⁶⁰⁾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한편, 신약의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⁶¹⁾라고 말씀하였고, 마가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⁶²⁾라고 기록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치유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승천 후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도 복음 전파와 치유사역 이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앓은병이를 고친 사건이 나온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도 뉘가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⁶³⁾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에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

57) 출 15:26.

58) 시 103:3.

59) 호 6:1.

60) 말 4:2.

61) 마 4:23.

62) 막 1:34.

63) 행 5:15.

면 그 병이 떠나고 악신도 나가더라.”⁶⁴⁾고 말하고 있다. 치유사역은 오늘날 교회성장의 비결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교회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로서 소외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지탱(Sustaining)의 기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의 지탱의 기능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실로 인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아주 불가능한 부분 즉, 이혼, 배우자의 사별, 불치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탱해 주면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때 회중은 문제 상황을 더 이상 악화 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며, 자신의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치료를 받으려는 내적 욕구가 생김과 동시에 치유를 위한 행동으로 옮기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사도바울의 경우가 지탱의 기능을 보여 주는 한 사례가 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치료는 네 은혜가 족하다고 응답하셨다. 바울의 경우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이에 대해 도리어 감사의 간증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병든 육체를 치유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탱의 치유를 받았다.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는 사도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침보다는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의 응답으로 더 은혜롭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주해하였다.⁶⁵⁾ 그런가 하면 메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으셨지만, 바울에게 족한 은혜로 위로를 주셨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기쁨을 주셨다고 강해하였다.⁶⁶⁾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지탱의 기능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전인치유를 받은 자들이 그 치유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전인치유를 받은 회중들이 자신의 치유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에 지탱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⁶⁴⁾ 행 9:11-12.

⁶⁵⁾ 이상근, *고린도서* (서울: 경북 인쇄사, 1978), 307.

⁶⁶⁾ 메튜헨리, *성서주석시리즈 고린도서* (서울: 기독교문사, 1992), 370.

이 때 부터 전인치유의 유지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성장과 도약을 기대할 수 도 있다.

4. 인도(Guiding)의 기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인도기능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 하여야 할 때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간증하였다. 그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빛이라고 고백하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카알 델리취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의지할 말씀으로 고백하였다고 주석하였다.⁶⁷⁾ 구약성경 잠언에서도 인생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⁶⁸⁾간증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처럼 설교에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찌라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⁶⁹⁾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확신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67) 카알 델리취, *구약주석 시편 하*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92), 549.

68) 잠 16 3.

69) 잠 16 9.

제 3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본장에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인 기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속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배경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하여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한 두 사람의 연구와 노력에 의하여 세워진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구약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기원과 성경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에덴동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만족한 환경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었다.⁷⁰⁾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나 그들은 별거벗은 수치심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이미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⁷¹⁾고 물으셨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요,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의 실존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70) 창 3:1-21.

71) 창 3:9.

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아담에 대한 상담이 시작된 것이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는 자기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다. 모든 상담은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시면서 점점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시면서 아담의 문제를 알도록 인도 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여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담의 책임 회피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에게 물어 보셨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함께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도 물어 보셨다. 역시 하와도 자신들의 문제 앞에 정직히 서지 못하였다. 하와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 보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물어 보신 것이다. 즉,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 잡혀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하신 것이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달도록 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결과를 알려 주시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먼저는 뱀에게 말씀을 주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⁷²⁾ 그런 다음 하와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⁷³⁾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

⁷²⁾ 창 3:14-15.

⁷³⁾ 창 3:16.

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⁷⁴⁾ 고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길을 얻었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런 다음 아담은 자기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줄을 알았으므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죄책감에 숨어 있던 아담이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 우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죽 옷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 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모든 후손들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목회상담은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고 두려움에 떠는 가인을 찾아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쩐 이뇨?”⁷⁵⁾라고 물어 보심으로 그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다.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인을 찾아가셨다. 그런데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का?” 라고 강박한 소리를 하였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그를 상담하여 깨달도록 하셨다.

창세기 16장 1-13절 에 보면 하나님은 여주인 사래에게 쫓겨나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만나 그를 상담해 주셨다. 또한 창세기 28장 10-22절에서는 하나님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떠나보내고 지도자의 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 그를 상담하였다. 또한 열왕기상 19:1-18절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떨고 있

⁷⁴⁾ 창 3:17-19.

⁷⁵⁾ 창 4:6.

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상담해 주셨다. 욥기 서에 보면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욥을 상담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구약 시편은 거의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생들을 잘 아시고 또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⁷⁶⁾ 이심을 잘 알 수가 있다.

J. E. 아담스는 성경은 인간의 가치관, 사고, 관계, 자세, 행위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성경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⁷⁷⁾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Counselor: KJV, NIV, RSV.)고 호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KJV 에 보면 잠언 11장 14절을 중심으로 상담에 관한 표현인 “Counsel”의 단어가 약 223번이나 나오고 있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상태를 잘 아시며, 또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 2 절 신약에서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을 찾아 오셔서 인간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 등 온갖 종류의 문제와 아픔들을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⁷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⁷⁹⁾,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⁸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⁸¹⁾ 또한 대 제사

76) 출 15:26.

77) J. E. 아담스, *상담신학*, 전동식 역 (서울: 기독교신보 출판사, 1990), 13-14.

78) 빌 2:6-8.

79) 요 1:14.

80) 요 1:9.

81) 요 1:14.

장으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고”^{B2)},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셔서^{B3)},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B4)}, “금홀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B5)}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 고통과 삶의 문제를 상담하여 치유 하셨고^{B6)}, 극심한 열등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키 작은 삭개오의 상처와 아픔을 상담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요 8: 1-11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는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셨다.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끌고 온 흥분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설교였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들어 떠나가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은 수치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 여인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이 여인을 상담하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상담은 상담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B7)}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의 아픔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그들과 상담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와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때 예수님은 당시에 모인 자들을 중심으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그것들에 관

B2) 히 9:15.

B3) 히 13:20.

B4) 히 11:6.

B5) 히 4:16.

B6) 요 4:4-42.

B7) 막 6:34.

련된 사람의 문제들을 지적하셨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후에, 장로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장로의 유전적인 죄에 꺼림직 했던 그들을 상담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한 레위인의 집에 가신 일이 있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세리들과 그 외의 수많은 손님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비판을 가한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서 집단적인 상담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고 말씀 하셨다. 이것은 당시에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위대한 상담이었고 당시에 영적 지도층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상담이었다.⁸⁸⁾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당시에는 아주 드물게 자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는 자기의 종이 병든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가서 고쳐 주려고 하셨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바른 신앙을 칭찬하셨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고통과 슬픔가운데 상심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덤문의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능력 있는 설교였다. 이것은 나사로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회중에게 죽음의 문제 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자로 도망자로 상처를 입고 살아가던 베드

⁸⁸⁾ 눅 5:27-39.

로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양을 먹이라”⁸⁹⁾라고 세 번씩 반복해서 물으시고 부탁하신 이 말씀은 좌절과 실패감에 몸부림치던 베드로를 상담하셔서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우는 놀라운 상담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되며 또한 상처입고 살아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셨고, 또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 주셨으며 심지어 그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실로 주님은 놀라우신 상담자로서 개인 상담과 그룹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분야에서 본을 보여 주셨다.

제 3 절 서신 서에 드러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등이 교회들에게 보낸 신약성경의 서신들은 교회에 속한 양 무리들을 위한 양육지도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상당수가 여러 교회들에서 돌아가며 읽혀진 회람 서신들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⁹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골로새서 4장에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⁹¹⁾는 말씀이 나온다. 글로 쓰인 양육지도 편지들이 예배 중에 있는 회중 앞에서 음성으로 읽혀 귀로 들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인 것이다.

교회 앞에서 읽혀진 양육지도 편지들 속에는 여러 종류의 주제들과 다양한 교훈이 담겨있다. 그런 서신서의 내용들은 그 당시의 교회나 성도들이 고충을 겪고 있던 주제들이었기에 그 말씀들은 일종의 목회상담에 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권세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뿐

89) 요 21:15-17.

90) 살전 5:27.

91) 골 4:16.

만 아니라,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거리였던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교인들 간의 법정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문제, 성만찬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 등 온갖 종류의 문제점들을 말씀으로 상담하면서 적절하고도 필요한 많은 교훈들을 전하여 주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인종간의 장벽들, 그리고 남녀 차별, 세대차이, 그리고 계층차이에 대하여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상담하며 치유하고 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연합과 겸손에 대하여, 기쁨과 관용에 대하여,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교인들이 염려를 갖지 않도록 상담형식으로 권면하고 있다.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하여 바울은 가르치며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담하고 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자세를 일깨우며 상담하고 있다.

디모데 전 후서에서도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권하여져서 주의 군사로서의 사역에 충실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서신 서들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상담의 형식으로 다루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도록 권면하고 있다.

구약에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신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담사역 이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도 상담과 관련지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⁹²⁾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육적으로 온전한 상담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⁹³⁾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상담하시고, 도우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⁹²⁾ 고전 6:11.

⁹³⁾ 요 14:16; 16:13, 롬8:1-11, 26.

제 4 장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이해와 산타마리아 믿음 장로교회의 특성

본장에서는 먼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대한 이해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드러나는 설교의 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집단으로서의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즘 문화권의 관점에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공동체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이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말들을 한다. 포스터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시대정신 이요, 문화현상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기존에 세웠던 가치체계의 토대가 흔들리며, 전통적인 결혼관이나 가정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전제한 말이며, 과학과 기술문명, 이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를 떠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는 의미를 가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은 1960년경에는 주로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전반에 걸쳐서 확대되었고, 1980년대에는 문예사조나 철학사상을 뛰어 넘어서 대중문화에까지 깊이 침투되었다. 이제 포스트모던적인 경향은 “선택 가능한 하나의 관점 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⁹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사회란 과학, 문학, 예술 등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서 변형된 형식과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와 같이 보편타당한 지식체계 또는 진리의 틀이 소멸된 것이 문화적 특징이다.⁹⁵⁾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⁹⁴⁾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0), 24.

영웅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나와 네가 모두 존중받는 사회, 국가기관의 통제력이 감소되고 개별적인 시민 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교차하는 개념이다.⁹⁶⁾ 불연속성이란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 넘는다는 의미이며, 좁은 의미로는 전통을 붕괴하고 허물어 버린다는 해체주의의 뜻을 가지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비합리주의⁹⁷⁾

현대 해체주의의 선구자는 독일 철학자 니체이다. 그는 신의 죽음과 더불어 인간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초인의 도래를 외쳤다. 그가 죽었다고 선언한 신은 기독교적 신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합리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니체의 외침은 헤겔이 근대정신의 지고의 원리로 설정한 절대정신의 종언과 이성 자체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즉, 니체의 선언은 현대사상의 기초가 되는 인간 이성의 해체를 말한다. 그는 생의 의지가 인간 삶의 근원이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이성이 지닌 합리성, 그 원리에 따르는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실증성을 진리인식의 지고의 권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이성의 권위와 도덕성,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포스터모더니즘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기초한 상대적인 진리관, 도덕관, 그리고 가치관을 내세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의 해방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제도 및 결혼에 대한 거부, 이혼의 급증, 독신자의 급증, 호모섹스의 사회적 허용, 정치적으로는 독재 권력의 거부, 지배 이데올로기의 거부 등이다. 이제는 근대과학이 주창했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진리도 관찰자의 가치와 주관적 기호가 깃든 상대적 진리이다. 개인의 경험과 민족과 문화집단의 특수한 진리만이 있다. 즉 다양한 가치와 태도, 분산과 불균형, 다양한 시각과 접근,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⁹⁸⁾

95) 신국원, *포스터모더니즘* (서울: IVP, 2000), 186-187.

96) 김영환, *포스터모더니즘과 한국 신학*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81-82.

97) 전광식 외, *포스터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통합연구학회, 1994), 77.

98) Ibid., 78.

2. 다원주의⁹⁹⁾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입각한 총체적 진리와 가치, 그리고 사회문화의 일원성에 입각한 획일화내지 통합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총체성, 전체와의 조화를 거부하며, 다양한 언어와 사상과 문화를 주장한다. 더 이상 획일적인 언어나 사상과 문화가 가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윤리와 도덕의 절대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절대 규범이 통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전통적인 규범 윤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행동인 상황윤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단 한가지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과 윤리적 지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포스트모던 신학운동¹⁰⁰⁾

포스트모던 신학 운동으로는 신정통주의 유형, 새 패러다임 유형, 새 존재론 유형, 신학적 다원주의 유형, 해방신학유형, 그리고 해체주의 유형 등이 있다. 신정통주의의 유형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되살리는데 초점이 있으며, 새 패러다임 유형은 복음과 후기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신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또한 새 존재론 유형은 데카르트적인 이원적 사고를 유기체적인 사고로 대체하고 있으며, 신학적 다원주의 유형은 기독교 전통과 성경 일변도의 교리에 저항한다. 해방신학유형은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시도한다. 그리고 해체주의 신학유형은 다원주의와 전통적 권위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해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탈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해체주의적 신학은 전통신학을 해체하고 그것을 비 신학으로 변형 시키고자 한다.¹⁰¹⁾

99) 전광식 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78.

100) Ibid, 81.

101) Ibid.

4.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가. 긍정적인 측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긍정적인 측면은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폭로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적 사고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일변도의 세계관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과학을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과 초월적 세계가 평가 절하되거나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 안에서만 인정되었다. 한편, 역동적인 세계관은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비적 세계를 향하여 열리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전통의 권위, 특히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건전한 권위까지도 부정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정체성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전통은 건전한 이성으로 비판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통과의 관계나 연결 없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터모더니즘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 여기서 기독교 신학은 그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며 하나의 종교학이 되어 버린다.¹⁰²⁾ 기독교 신학은 종교경전을 무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지엽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신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학으로만 가능해진다.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상실한 후기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

포스터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진리의 시간적, 공간적, 인종적, 성적 격차와 상대성의 지나친 강조로 객관적 진리와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내지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신앙의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¹⁰²⁾ 전광식 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92.

마지막으로 포스터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다원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경향에 서 있는 문화 창출자들은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 그들의 문화 표현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나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권위의 표출과 중심의 상실은 다원성과 다양성의 추구로 표출된다.¹⁰³⁾ 그 결과,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린다. 이것은 기독교가 직면한 큰 도전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하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의 계시의 유일회적 성격은 기독교를 종교를 넘어서는 계시로서 특징짓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의 현상은, 건물을 지어도 피타고라스적인 균형 비에 따라 세우지 않고 불균형적이며 파괴적인 형태로 지으려는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작업행위 그 자체의 정신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 활동을 포함, 인문, 사회, 자연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현상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스터모더니즘은 사람들의 의식과 삶, 사회 문화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중에 하나로, 포스터모더니즘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데서 오는 무기력증, 그리고 충동적, 감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주의 화 되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절대가치를 가지며 절대화의 표준인 말씀의 요구에 단순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영향 하에서 신앙의 양상마저 신비주의, 체험주의, 개인 경건주의, 탈 교회주의로 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말씀과 교리에 대한 강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시대의 정신 안에서 교회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희생과 섬김, 나눔이 살아있는 강력한 신앙공동체를 건설하여 교회가 시대적인 대안 공동체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¹⁰⁴⁾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기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다.¹⁰⁵⁾

103) 이문균, 포스터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61.

104) 롬 12:2.

제 2 절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드러나는 설교의 위기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은 설교사역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스터 모더니즘은 근대성이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던 모든 것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파괴하여 기존의 신념을 붕괴하고, 보합적인 합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사역과 관련하여 볼 때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 진리, 혹은 메타 내러티브의 해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¹⁰⁵⁾ 여기에서 기독교의 설교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성과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포스터 모더니즘이 지성보다는 감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교가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기존의 권위를 포함하여 절대적인 가치나 보편적인 사실을 거부 혹은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설교는 주로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권세까지 덧입혀 주셨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설교자의 권위 자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오늘의 설교자는 설교자라고 저절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목회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설교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 되고, 설교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설교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며, 설교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를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불리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설교의 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요소이다. 외적인 요소는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설교자에게 설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외적인 요소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05) 전광식 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92-101.

106)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86.

1. 설교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적인 요소

첫째, 설교의 위기는 권위와 전통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제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 사회,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전통적인 권위로 타인을 굴복 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역시 권위와 전통 속에 존립해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대해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혼, 별거, 동거, 가출, 비행과 같은 가족해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의 갈등과 부조화를 크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⁷⁾

둘째, 설교의 위기는 계층, 지역, 이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 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와 지역이 다른 출신의 목회자를 초대하기를 꺼려한다. 60년대 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으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심화는 설교의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설교의 위기는 가치관의 혼란과 개인주의의 발달로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 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희생정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됨을 말하고 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대두되면서 희생과 공동체를 앞세우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희생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은 교인들에게 별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심지어 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에는 개인적인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곳이 성공하는 목회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넷째, 설교의 위기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의 풍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즐길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지적으로 무비판적이 되었다.¹⁰⁸⁾ 예를 들면, 70년대 이전의 영화에는 이야기 즐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즐거리가 없다. 이런 것은 현대인들의 시대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 만연하는 것은 이기주의요, 쾌락이다.

107)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55.

108)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81.

다섯째, 설교의 위기는 물질만능의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물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의 사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의 사고방식이 극도의 이기주의와 기복적인 삶의 양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상태는 하나님의 섭리, 뜻, 능력보다, 교인들로 하여금 물질에 우선 순위를 두게 만든다.

여섯째, 설교의 위기는 TV나 레저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강연이나 딱딱한 설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 전달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설교가 행해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¹⁰⁹⁾

일곱째, 설교의 위기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의 10년은 과거의 100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속도는 설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세월이 갈수록 설교에 권태감을 느끼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2. 설교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적인 요소

첫째, 설교자의 소명과 자질 부족 현상이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하였고 순교를 할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쉽게 목회지를 떠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충돌이 많아 졌다. 또한 목회자가 싫다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는 목회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직은 소명의식에 기초되어져야 한다. 존 스토틀은 그의 책 *현대교회와 설교*에서 “자기 양에 대한 선한 목자로서의 돌봄은 먹이는 일, 인도하는 일, 보호하는 일, 치료하는 일 등 네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¹¹⁰⁾고 말하였다. 이런 일들은 소명의식 없이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 위에 목회자로서의 자질 향

¹⁰⁹⁾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9), 18.

¹¹⁰⁾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134.

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설교자가 교회의 다른 업무로 인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에게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만물박사처럼 그렇게 준비되기를 요구한다. 더욱이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대의 목회자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심방하는 등의 종래의 목회자의 역할 위에 다양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요구받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는 현실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는 가정들의 아픔과 요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위해 목회상담, 치유학교, 부부 관계를 위한 회복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자가 필요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 하나도 전문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일상 업무에 빠져서 목회자의 주 업무를 소홀하기 쉬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존 스토틀은 이에 대해 “만약 우리가 사도들이 행한 대로¹¹¹⁾ 최우선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확립하려 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상당한 책임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목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관한 신약의 신념을 충실하게 나타낼 것이다¹¹²⁾”라고 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쉽게 탈진하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어서, 좌절감을 가지고 목회 지를 떠나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준비하여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목회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분야나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신학의 혼란과 교회 분열 등의 요소가 설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적인 상황이 설교의 권위를 붕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목회의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람을 감화시켜서 교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를

111) 행 6:4.

112) John Stott, 138.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신자를 양육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 이 천년 동안 설교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날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¹¹³⁾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번성하려면 성경적인 설교의 회복이 필요하다.¹¹⁴⁾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달라진다 해도 목회자는 설교 없이 목회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목회자는 설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충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제 3 절 집단으로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이해

인간은 일생동안 다양한 집단 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성장하며 발달해 나간다. 각 개인들은 가족, 포레집단, 여가 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화를 이루어 나간다. 그리고 집단 안에서 바람직한 대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며, 힘들고 고통스런 시기에는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한다.¹¹⁵⁾ 특히 복잡하고도 다양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각종 사회문제나 역기능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집단 경험과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클라인벨은 그의 책 *목회와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한 면으로는 개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한 면으로는 집단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각 개인이 살아있는 생체구조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모인 것도 살아있는 생체 구조이다. 문제는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실존의 개인적인 차원은 명백히 발전하는데 비하여 집단적 차원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¹⁶⁾라고 말하였다.

집단에 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인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구성원을 가져야 한다.

113) 시 95:7.

114)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129.

115) 남세진, 조흥식, *집단지도 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4.

116) H. J. 클라인벨, *목회와 지역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6.

둘째, 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

넷째, 성원들 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집단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는 크기와 목표 그리고 상호작용임을 알 수가 있다. 집단은 대개 문제를 공유하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한다. 또한 상호행동과 개개의 집단 성원들의 행동은 집단의 모든 성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집단의 성원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에게 반응하며 상호의존적이 된다. 따라서 집단의 개념정의를 이렇게 내려 볼 수가 있다. 즉, 집단이란 “3인 이상의 일정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성원들이 소속감 및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지며, 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고 있는 인간 집합체”¹¹⁷⁾를 말한다.

이처럼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도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클라인벨은 “교회는 전인적이며 거룩한 인간을 산출하는 사회구조를 창조해야 하며 그 자체가 이러한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¹¹⁸⁾고 말하였다. 그러면 산타마리아 지역은 어떤 도시이며 성도들은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타마리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세 시간쯤 북쪽에 있는 미국의 전형적인 농촌의 하나이다. 또한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 부촌인 산타 바바라와 샌 루이스 오피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대단히 비싼 지역 중의 하나이며, 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간 지역이어서 여행객들과 방문객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대신에 안정감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¹¹⁹⁾ 이곳은 캘리

117) 남세진, 조흥식, *집단지도 방법론*, 4.

118) H. J. 클라인벨, 30.

119) 조신영,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서울: 한스미디어, 2004), 24.

포니아의 포도의 주산지요, 부르클리와 딸기 같은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지역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이 태평양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종종 안개가 끼어서 인공위성에서도 이 지역이 식별되지 않아 가까운 곳에 미 공군의 중요한 미사일 부대가 위치해 있다. 이 부대에서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등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이 지역은 정착인구는 약 1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인구파악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 농번기에는 약 25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특이한 지역이다. 이곳 인구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멕시코에서 왔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유입되어온 인구이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의 주류 인구는 히스패닉인데 전체인구의 5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백인인데 32퍼센트, 그리고 다른 인종들이 약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지역의 거주자들의 평균나이가 29.2세(2000년 인구조사)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사철만 되면 멕시코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산타마리아의 일반적인 인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243,611명이지만 인구조사에 보고된 인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77,423명이다. 약 16만 명은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임시 거주자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의 특징은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농번기가 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농사철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그런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부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상업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이곳에 사는 히스패닉 사람들은 주 중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온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주말에 돈을 지출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인 교인들은 자연히 토요일과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어서 주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 활동도 주일날 하지 못하고 주로 주중에 하게 되는 특이한 지역이다.

이 교회의 초창기에는 찬양과 선교에 중점을 두고 교회가 성장해 갔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프레스 디아스 훈련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열심을 내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

의 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가운데, 약 5년 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장로님들과 젊은 집사들 사이에 사소한 분쟁이 있었다. 다른 이민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이 지역도 특성상 교인들 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대화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다. 당시의 전임 목회자가 많이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 되었다. 이런 분쟁가운데 당시 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회자와 젊은 층의 교인들, 그리고 일부의 교인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감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아직도 이 지역에 함께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나 교류를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의 경우와 같이 지역의 교회들이 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 가운데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는 2005년에 교회를 창립한지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의 중심 멤버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민 초기에 온 사람들로 군부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피해의식도 강하고 응집력도 강하여서 이들의 단결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하고 비교적 순종적이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더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는 관리 집단을 이루어서 고통을 잘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사업차 혹은 취업관계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비교적 공부도 많이 하였고 생활에도 여유가 있다. 미국에 온 동기도 유학을 왔거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서로 유대 관계가 약하고 서로가 또래 집단을 만들지도 못하며 함께 모여도 결속력이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교적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양 쪽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스페니쉬 같은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사람들마다 개성이 강하다. 또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언제 분쟁에 말려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

로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다양한 회중들 앞에서 일주일에 평균 열 번이 넘는 설교를 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설교를 하며 특히 담임 교역자중 58%는 열 번 이상 설교한다고 응답하였다.¹²⁰⁾ 참으로 공감의 가는 통계자료이다. 필자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는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다.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들이 왠지 마음들을 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설교자 자신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설교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나 청중이 외면한다든가, 설교가 아무런 느낌을 공유하게 하지 못하는 설교가 된다면, 그 설교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필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언제나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곧고루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필자는 설교준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인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먼저 회중들의 다양한 필요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원리 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듣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을 필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알게 되었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도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 줄때 서서히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면서 소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¹²¹⁾ 그래서 필자는 종종 성공담 보다는 내 자신의 실패한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예화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랬더니 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듣게 되었다. 내 자신의 실패한 경험들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성도들은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필자는 설교자와 청중들 간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0) 뉴스엔조이, 2001년 6월 29일자

121) 정태기, *아름. 상담. 치유*, 171.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1부 예배(오전 8시30분)때에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상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즉시 그들은 가게로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장사를 해야 한다. 1부 예배 참석자들은 주일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바쁜 날이다. 또한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2부 예배에는 군부대에서 사는 분들과 이곳에 온지 오래된 분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지역에 온지 오래된 분들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국제 결혼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었고, 근래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1부 예배 시간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활 속으로의 적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중심으로 주로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예배를 마치고 빨리 그들의 가게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짧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도 정한 시간 안에 마쳐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부 예배시간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참석한 성도들이 대부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 문화권 성도들이므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

제 4 절 이중 문화권으로서의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특성

필자가 섬기는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이다. 성도 중에는 최고의 학부를 마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사업에 성공하여 안정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서로간의 문화적인 갈등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가족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수준으로 사는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도 있다. 어떤 성도는 남미 스페니쉬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에서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니쉬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는 가정도 있다. 게다가 더욱 어려운 것은 어떤 성도들은 특별한 사회라고 불리는 미군 군부대 안에 살면서도 영어를 몰라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원래 산타마리아 지역에는 침례교회 하나만 있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하였는데, 그 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결국에는 목사님의 지도방침에 반발한 성도들이 나와서 믿음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주로 닫힌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음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상처들이 잠복해 있다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속상함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에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진 때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 한사람이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를 입으면, 그 이야기는 삼시간에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한 지체이므로 성도들의 한두 가지의 문제는 이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곤 한다. 본 교회는 특별히 여러 번 아픔을 겪은 교회이다. 필자가 이곳으로 부임해 오기 전 불과 얼마 전에 교회에 여 집사님이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하였다. 상처와 상실감으로 갈등하던 여 집사가 계속되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관리집단을 만들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한 여 집사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던 중에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과 헤어져서 먼 외지로 떠나고 말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정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직도 젊은데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녀는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심한 상실감으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온갖 종류의 아픔들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필자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게 되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연구하다가 본인은 위기관리 집단을 만들어 서로가 삶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각자에게 있는 고통과 이상 증상들을 미리 발견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포레 집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치유사역과 함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포레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의 누구나 다 지지집단이 필요한데, 특히 남편과 언어문제로 극히 제한적인 대화만 할 수 있는 이중 문화권에서 사는 분들이나,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 대화하지 못하고 치유 받지 못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포레 소그룹 집단

성경공부를 만들어 시작한 것이다. 길버트 빌지키언은 그의 책 *공동체* 에서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 친밀해져서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며, 비밀을 이야기 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 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점검해 주며 함께 성장한다. 사람들의 인격성장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다. 소그룹은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였다.¹²²⁾ 처음에는 필자가 그 소그룹을 인도할까 하고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다가 필자는 커피브레이크라는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질문식 소그룹 성경공부의 효과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포레 집단 소그룹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양육하였더니 말씀 안에서 훨씬 깊은 대화와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클라인벨은 “인간 실존은 개인 정체와 집단 정체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똑 같이 중요한 것이며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이다.” 라고 하였고,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 란 책에서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¹²³⁾라고 하였다.

Andrew D. Lester는 그의 책 *희망의 목회상담* 에서 목회의 중요한 책임 및 특권은 희망을 복돋워주고 절망과 맞서 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목회와 상담은 역사적으로 치유, 지도, 격려, 화해, 해방에 관심을 가져왔다. 상처 입어 치유가 필요할 때, 덮에 걸려 해방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희망은 중요한 심리학적, 신학적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희망적인 미래 이야기를 만들게 하고, 현재의 갖가지 상황 속에도 수많은 가능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¹²⁴⁾고 말하였다. 그래서 치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이야기를 만들어 희망을 심는 의식화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12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Community)*, 두란노 역 (서울: 두란노, 1998), 67.

123) Henri J.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126.

124) Andrew D. Lester, *희망의 목회상담*, 신현복 역 (서울: 한국심리 치료 연구소, 1997), 11-13.

그러던 중에 치유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도 방문하면서 교회 안에 치유사역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 주일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 훨씬 효과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설교도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교리적 설교 대신에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삶에서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삶에 깊숙이 적용할 수 있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계속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게 함으로 상처들을 치유 받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 서도록 계속 노력하였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승패는 성도들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설교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회중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회중의 삶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중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모습들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임으로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채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도시화, 산업화, 전문화, 레저화 되어가는 현상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¹²⁵⁾ 그러므로 설교자는 시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청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청중 이해를 위해 오늘의 시대상황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 현상이다. 도시화 현상에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소외와 익명성이다. 교인들은 교회를 나와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컴퓨터로 인해 번호와 기호로 통하는 시대이기에 자신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야

¹²⁵⁾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18.

가 많이 늘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현상으로 이동이 활발하다. 이는 등록하는 교인들의 수만큼 이주하는 수도 늘어난다는 말이다.

둘째, 산업화 현상이다. 갈수록 모든 것이 규격화, 기계화, 대량화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간도 거대한 구조의 부속품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인격보다는 기능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특히 교육이 규격화 되어졌다. 그리고 비싼 것이 좋고 큰 것이 좋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생명 위기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생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인간생명의 유일회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간복제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대두하게 되고 인간의 죽음을 인간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락사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시대는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⁶⁾

셋째, 전문화 현상이다. 과거에는 목회자를 성직자로 따르고 추앙했다. 그런데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 가운데 하나로서 목회 직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목회자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목사를 성직자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넷째, 레저화 현상이다. 이제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동차와 보트 등 주말에 즐기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점 주일에 타지로 가는 자들이 늘고 교회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공원이나 레저시설이 있는 곳에는 주말이 되면 주말교회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삶이 다양해지고 행동반경이 훨씬 넓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 대한 다양한 시대정신과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분석과 이해, 동정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구원키 위한 전문적인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

¹²⁶⁾ 맹용길, *생명의료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87-110.

제 5 장

상답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 준비의 원리와 전달

설교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박희천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이다.”¹²⁷⁾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해돈 로빈슨은 그의 책 *강해설교*에서, “설교란 하나님과 설교자와 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살아 움직이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¹²⁸⁾ 한편, 로버트 웨버는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이란 그의 책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보전되고, 해석되고 전수되는 현상이 교회라고 하였다.¹²⁹⁾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교인들에게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균형 잡힌 건강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건강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성도들이 본을 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설교자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오픈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까지 내보일 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설교자와 회중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¹³⁰⁾

설교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적절하게 적용시켜야 함으로 참으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러면서도 설교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고, 설교를 생활화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강단에서는 언어로 설교가 선포되고, 강단 아래서는 삶으로 설교를 해야 하기에 설교는 쉽지 않다. 존 스토틀은 설교자는 하나님

127)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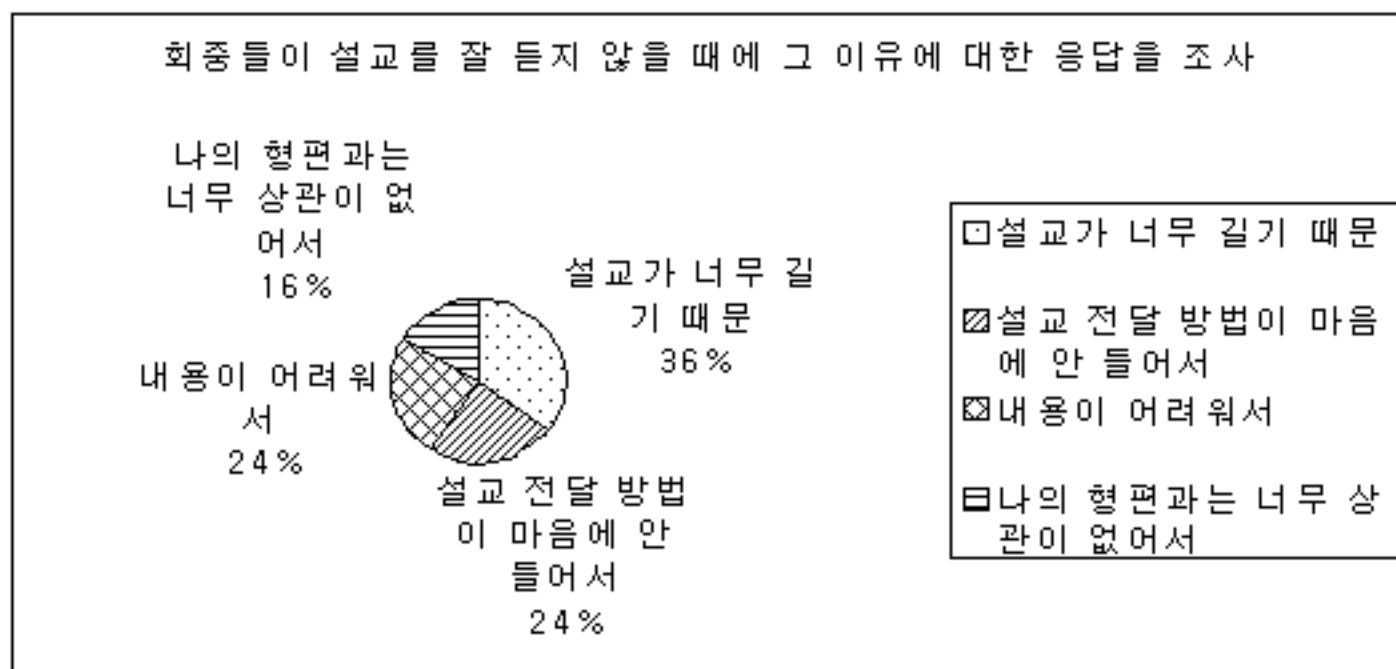
128)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2.

129) 로버트 웨버,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4), 8.

130)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서울 : 요단 출판사, 1990), 29.

말씀의 청지기요 반포자요 증인¹³¹⁾ 이므로 설교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회와 신학에서 회중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을 조사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제일 많은 16.29퍼센트의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11.25퍼센트는 설교 전달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11.25퍼센트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7.64퍼센트는 나의 형편과는 너무 상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하였다.¹³²⁾



이런 통계에 의하면 설교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회중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준비와 구성 그리고 전달기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설교가 저절로 잘 되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이 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원리들과 전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1) 존 스토틀, 설교자상, 문창수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60-100.

132) 송기태, "평신도의 설교 태도 분석 (II)," 목회와 신학, 1991년 9월호, 88.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준비와 구성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섬세하고도 정성스런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준비 없이 임하여도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듣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회중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설교자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며 연구하는 자에게 더욱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회중들도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하지만, 설교자에게도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준비해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경말씀을 깊이 그리고 균형 있게 연구하며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설교의 승패는 평소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필요와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청중과 설교자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은 활력 있는 전달의 근원이다. 피드백이 없다면 설교는 삶을 거의 접촉하지 못할 것이다.¹³³⁾ 그리고 목회 상담에 대한 서적들과 논문들, 그리고 임상실험결과 보고서들을 찾아보면서 상담세미나에도 참여하면 훨씬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상담이론을 더욱 깊게 다듬어 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1.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설교의 구성, 즉 형태(form)는 설교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할 것인가와 무엇을 계속 연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므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¹³⁴⁾ 설교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도입부

¹³³⁾ Haddon, W. Robinson 외, *확신에 이르게 하는 설교*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47.

¹³⁴⁾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 역 (서울: 쿤란출판사, 1998), 190.

분으로서의 서론(Introduction), 본문 주해나 강해(Exegesis), 그런 다음 적용(Application), 함의(결단, Implication)등의 순서를 따른다. 이에 관해 도널드 캡스는 설교의 내용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담적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만풍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둘째, 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셋째,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넷째,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¹³⁵⁾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회중의 삶을 관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예리하게 찾아내어 그들에게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성경본문을 택하고, 그 전후문맥과 내용을 다각도에서 파헤쳐 그 작업에서 얻어진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강해설교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서론, 본문, 결론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서론은 말 그대로 도입부분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다. 출발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서론은 밀물과 썰물처럼 강약을 이용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시간이다. 서론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경험이나 예화, 좋은 글에서 인용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통계 등을 인용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 시켜 회중이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암시하기도 하며, 회중들은 이 설교가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이 서론부분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서론에서 성도들이 설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서론에서 실패하면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흥미로운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도입하기도 한다. 설교는 최초 삼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서론에서 실패하면 회중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집이나 어제의 일 등 상상의 날개를 달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서론의 목적에는 첫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둘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본문에 들어가기 위한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설교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다.¹³⁶⁾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서두에서부터 회중의 관

135)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28.

13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09.

심을 사로잡아 들을 귀를 준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강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셨느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본문의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왜 행하였는가,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 통일성, 일관성, 단순성과 정직성의 다섯 개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본문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설명에서 특별한 진리를 도출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식 또는 대화체로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적용 부분에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전달하여야 한다. 즉,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개인, 가정, 직장 또는 학교, 교회, 그리고 사회¹³⁷⁾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피도록 한다. 이때 도매가 아닌 소매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메쉬 리처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즉, 적용의 통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³⁸⁾.

1. 자세: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환경에 대한 태도,
2. 하나님에 대한 지식,
3. 행동: 발전시켜야 할 습관들, 바뀌어야 할 습관들, 확인해야 할 습관들,
4. 관계들: 용서하고 용서받고 격려하고 징계하고 복종하고 이끌어 가야 할 관계들,
5. 동기들: 잘못된 이유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6. 가치관과 우선순위: 무엇이 또는 누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또는 누가 해야 하는가?
7. 인격 등.

그리하여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초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미 전달 또는 결단의 시간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역사하도록 결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요약과 질문, 구체적인 지시나 영상화의 방법

137)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 요단출판사, 2000), 80-85.

138) 라메쉬 리처드,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정현 역 (서울: 디모데, 2001), 162.

을 사용하여 개인 개인에게 도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 주해 혹은 강해에 있어서는 전환의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사용된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말해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 또한,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 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여서 이야기식 또는 대화체로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본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므로 이해가 안 되어도 좋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도 많지만 그는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 되어졌다.¹³⁹⁾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 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 전달 또는 결단의 시간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역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요약과 질문, 구체적인 지시나 영상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설교자가 너무 의도적으로 결단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 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많다.

2.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흐름(Flow)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일반 설교와 동일하게 질문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떤 종류의 설교이든 지간에 설교가 맥이 끊어짐이 없이 어떻게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포괄성을 지닌 암시와 내포, 가르침과 지시, 예시와 예화, 긴장 그리고 결심 등의 요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포괄성(Inclusion)이란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해 공감성을 가지고 듣도록 하는 부분이다. 즉 설교를 준비할 때, 나의 설교에

¹³⁹⁾ 최한구,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1), 22.

어떻게 회중 전체를 포함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설교임을 깨달도록 암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설교가 흥미를 유발하여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너무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저속한 언어로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 중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예화를 사용할 때에도 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효과적이고 신선한 것으로 잘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부정적인 예화는 피하고 긍정적인 것을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예화는 회중에게 많은 부담과 함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화를 쓸 때에는 자신의 삶에서 깨달거나 은혜 받거나 실수한 부분들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 적일 것이다. 대개 교인들은 주로 예화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예화는 재미와 함께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한 긴장감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느꼈던 생생한 체험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성도들이 더욱 쉽게 마음을 열 것이다. 그래야 확신 있고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이 들은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예화는 설교에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생한 묘사이다. 그래서 예화는 듣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¹⁴⁰⁾

좋은 설교는 한편의 영화와 같다. 긴장감이 계속될수록 성도들은 계속 주위를 기울이기 때문에 집중할 것이다.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 갈 때와 같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교를 마무리 하는 결단(Resolution)의 시간에서는 설교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중심 명제를 복습시키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성도들이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초대할 것이다.¹⁴¹⁾ 결심 부분에서는 서서히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청용열차를 타고 아슬아슬한 곡예를 마치고 종착역에 들어오는 것처럼 편안한 안도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은 설교를 정리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0)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는 이렇게*, 두란노서원 출판부 편집, (서울: 두란노 서원, 1990), 57.

141) 라메쉬 리처드,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76.

3.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환경(Milieu)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 환경과 연관해서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말씀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청중에 대해서 민감한 설교자들이 되어야 한다.¹⁴²⁾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시대에 맞게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대중들의 문화를 잘 관찰해야만 한다. 우리가 주로 고려해야 할 문화적 가치들(values)로서는 예술, 건축, 음악, 문학, 의상이나 언어 습관 등이 있다. 이런 문화적 가치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상담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그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복음을 전달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설교도 하나의 종합 예술이므로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박력 있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정서적인 내지는 감정적인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감사 생겨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현대에는 교회의 실내 장식이나 건축구조도 설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교회들 마다 교회 실내장식이나 분위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좋은 예로 시카고에 위치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시무하는 윌로크릭 교회는 매 주일마다 전문가가 무대 장치와 실내장식을 그 주일의 전체적인 주제와 목사의 설교내용과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회마다 교회의 건축물과 실내장식은 그 교회의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내 장식이나 조명들은 예배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화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음악도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세대마다 수준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음악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젊은이들의 음악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를 것이다. 그 교회의 중심계층의 음악을 이해하고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세대 간 계층 간 균형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 했던 윌로크릭 교회는 찬양 팀이 여러 팀이 있어서 교대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주일에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또 다른 주일에는 밴드가 와서 반주를 하고, 또 어떤 주일에는 실내

¹⁴²⁾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63.

악단이 나오는 등 여러 계층의 다양한 수준을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주일에는 컨츄리 가수가 와서 예배 시간 전체를 간증과 찬양으로 보내는 것을 필자가 직접 참여하여 경험해 보기도 하였다.

한편, 교회 공동체에는 문학적인 부분도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성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가 그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문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학은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는 한 부분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를 통해서만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문화는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매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들을 소개하고 함께 읽고 읽은 감상들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서로의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것은 다양한 현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또한 시대마다 환경마다 의상도 다르다. 특히 설교자의 의상은 그 주일의 주제와 아울러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상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데, 불편감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화려하거나 반대로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되고 회중들이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기준에서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용모와 단장은 회중과, 주위 상황, 그리고 설교자, 이 세 요소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⁴³⁾

그 뿐만이 아니다. 언어 습관이나 사용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혹은 어떤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담 설교자는 언어 습관이나 몸짓의 사용이 거북하지 않도록 하고 성도들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설교는 한 부분만의 노력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노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청중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한다. 즉 청중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밭의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씨앗의 특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특별히 밭의 특성을 깊이 고려하여 거기에 알맞은 씨앗을 골라 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143) 해돈 W. 로빈슨, *강해설교*, 229.

는 풍부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⁴⁾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리더십을 지닌 목회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설교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설교에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설교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설교 속에는 영적 침체에 빠진 마른 영혼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한 결심을 하게 해야 한다.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계와 공감대를 중시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설교자는 먼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설교제목을 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서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목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삶이 바탕이 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삶이 바탕이 된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좋은 설교가 되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의 인격과 전달 방법도 또한 중요하다. 특별히 상담 설교를 하는 상담설교자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와 인격은 설교에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교자는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말씀을 듣는 회중이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승패는 설교자가 얼마나 믿음의 확신과 기도로 무장된 설교를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위로하는 것은 잘 훈련된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상담 설교자는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야 한다. 요즈음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적이

¹⁴⁴⁾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63.

없었다. 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면 교육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달 기술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겸손히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자의 실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그런 설교가 아닌, 설교자가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때,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 집단치료가 이루어져서 좋은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위한 주제선정과 본문선택

1. 주제선정

중심 주제란 핵심사상, 주제, 혹은 명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중심 주제란 본문이 가르치는 주된 사상을 말한다.¹⁴⁵⁾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 생각과 동기는 아주 다양할 것이다.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택할 수도 있다. 또는 성도들을 심방하다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주제를 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설교방송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하다가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택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치료적, 예방적, 교육적 상담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왔다.¹⁴⁶⁾ 치료적 상담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적 상담은 문제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문제들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교육적 상담은 상담자가 주도권을 쥐고 보다 많은 그룹들에게 정신 건강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 선정의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성경본문이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도 성경본문에 근거하면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필요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필요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답을 다 제시하는 것은

145) 존 맥아더 외, *강해설교의 재발견*, 11.

146)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도서출판 예인, 1996), 176.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분과의 교제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혹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개개인에게 맡겨두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 성경 본문이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를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이 회중으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보는 필요와 회중 자신들이 느끼는 필요 사이에 객관적인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과 주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우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다. 회중이 처해 있는 현실의 필요를 목회자가 잘 파악하지 못하여 주제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회중들의 문제에만 끌려 다니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균형 잡힌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중심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중심사상을 발견하게 되면 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¹⁴⁷⁾

둘째, 회중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먼저 선정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가 주제를 선택하려고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생각날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필요는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때 먼저는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주제를 선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한 주제를 다루어주기를 요구하여도 한 두 사람의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 절박한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갔던 이야기¹⁴⁸⁾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회중이 요구하는 그런 주제보다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시급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상담설교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에

147) 존 맥아더 외, *강해설교의 재발견*, 326.

148) 눅 15:3-7.

설교자가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설교자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교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설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자신이 생기고 다음번에도 더욱 효과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듣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다음 설교를 기대하게 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또한 회중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교자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주제의 설정은 회중의 필요에 부합해야 상담효과와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주제선정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우선적으로 회중의 필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회중의 필요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상담과 친교 모임, 성경공부나 세미나, 갖가지 교회행사들의 준비와 진행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평소에도 성도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알아내는 것이 적절한 상담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회중 편에서 생각하는 필요와 상담설교자의 생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때 비로소 회중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서재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와 회중들이 만나는 삶에 현장에서 준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보다 넓은 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찾는다.¹⁴⁹⁾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고 보다 넓은 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제는 때때로 샌드위치 형 구조에서 발견된다. 성경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는 목회자는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배워야 한다. 주님은 여리고 성에 의도적으로 방문하셔서 뿔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의문

149) 존 맥아더 외, *강해설교의 재발견*, 328-330.

을 풀어 주셨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해 주셨다. 수많은 병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주린 자들과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또한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찾아 가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역은 주님의 전도, 기도, 교제, 가르침, 제자 양육, 회당예배참석, 그리고 그 분의 의롭고 거룩한 삶과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신 장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목회 사역에는 상담사역도 포함되어 있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목회상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대면하여 하는 개인 면담, 전화로 도움을 주는 전화 상담, 글로써 도움을 주는 서면 상담,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룹 상담, 온 가족들과 한 자리에서 하는 가족 상담, 주제 발표를 하고 토의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상담세미나, 상담교육,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 시에 하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 등이 있다. 이처럼 청중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지면 거기에서 얻는 서로 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설교의 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쉬어질 것이다. 또한 상담의 기본 역량을 키우는 것도 주제를 선정 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목회 상담의 일반적인 역량이 늘수록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역량도 아울러 발전하게 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상담과 설교를 접목시킨 사역의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폭 넓고 깊은 연구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과목들과 이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미나들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문적인 서적과 논문들, 그리고 정기간행물들을 찾아 읽고 연구하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 목회 현장에 상담의 경험을 쌓는 것도 실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회 상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선정은 더욱 쉬워지고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의 지식들이 늘어나고 성경을 보는 설교자의 시각이 균형을 이룰 때 목회전반에도 균형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설교에도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본문에서 주제를 찾고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주제 선정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반복되는 주제로부터 중심 주제를 발견한다.¹⁵⁰⁾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중심주제는 때로는 반복되는 주제를 살핌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 본문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을 때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두드러진 주제가 전면에서 나온다. 그런 가운데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다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그 주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공통되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은 연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중이 그 다음 편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로는 다음 주일에 할 주제들을 미리 예고함으로 교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성도들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나가서 이웃들에게도 권하게 되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인 주제는 자칫하면, 진부해 지기 쉽고 흥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난의 주제는 성경에 다양한 문맥에서 적절한 본문들을 택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주제는 같아도 지루한 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목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면, 치유 시리즈, 분노 시리즈, 용서시리즈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한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한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말씀의 깊이 보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공감대가 있는지에 따라 은혜를 받기도 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회중 개개인의 삶의 현상이 다양하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중들의 필요도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제는 복음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청중들이 부담스러워 할 만한 것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교는 복음의 선포이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로 귀결된다. 필자도 미국 이민 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두 차례의 항의 전화를 받아 보았다. “왜 목사님은 나에게 들으라는 뜻이 그렇

150) 존 맥아더 외, *강해설교의 재발견*, 330-331.

게 설교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는 받지 못하고 부담만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최근에 특별한 일을 당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시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다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목회자는 그의 마음을 양떼에 두며 부지런히 그들을 살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언제나 부정적인 주제나 접근보다는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라고 해서 모든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연구하다 보면 전할 주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교회는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에 대하여 예를 잘못 듣게 되면 낙심할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예를 듣기보다는 재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도록 힘을 줄 것이다.

2. 본문선택

첫째, 주제에 합당한 본문을 택해야 한다.¹⁵¹⁾ 주제선정을 먼저하고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문을 먼저 선택하고 주제 선정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주제에 합당한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그 주제는 본문에 합당한 것이라야 한다. 설교자 자신의 주장이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라 할지라도 본문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자신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한 우리가 져야할 십자가를 회개와 용서와 사랑 등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

151) 김만풍, *상담설교*, 77.

제를 선정하여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감사절과 성탄절 때에도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본문들을 선정한다면, 다양한 본문들을 균형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가장 포괄적인 본문을 택하여야 한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그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본문을 하나이상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너무 긴 본문을 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한 본문 안에서 그 주제를 가장 정확히 다루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신구약 한 곳에 편중되지 말고 성경의 본문을 골고루 선택한다. 다른 분야의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도 신구약 성경에서 골고루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한 책에서 특정한 대목만을 선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한 권 전체를 강해하는 가운데 적절한 대목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설교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만 편중되어 택한다면 회중들은 편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에 익숙해지는 것 뿐 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다른 설교에 비해서 현실감이 있고 감명이 깊고 또한 은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성경 일부분에 치중 한다면 회중이 말씀을 편식하게 된다. 회중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그들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 본문의 빈도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율법과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의 본문들을 골고루 선택하여 매년 일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에 출석하는 회중이 가능한 단시간에 성경전체의 말씀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문을 골고루 선택해서 성경 전체에 맞추어 균형 있게 설교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모든 설교자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번이상은 성경전체를 통독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설교본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며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고¹⁵²⁾ 말한다.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서론과 결론

1.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서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서론의 목적은 일반 설교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설교자와 청중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가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교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서론이 필요하다. 153) 그래서 서론에서 주의를 집중 시키고 필요를 표면화 시켜야 한다. 즉,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54)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의 서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존 스토틀은 서론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서론의 첫 번째 목적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좀 더 많은 욕구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론의 또 다른 목적은 청중이 주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청중들을 그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155) 왜냐하면 회중들은 대부분 서론시간에 이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설교인지를 단정하기 때문이다. 회중이 서론을 듣고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받게 되면 이제는 문제의 해결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 원리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궁금증이 고조되는 순간에 회중의 필요를 채워줄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제시하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전한다. 이 부분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핵심부분이다. 156)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론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하거나 설명식이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적절한 길이가 필요하다.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학자들은 서론은 전체 설교 가운데 2-10% 내외의 길이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의 길고 짧은 것 보다는 청중들에게 그 메시

152) 안병만, 존 스토틀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셋트, 2001) 222-223.

153)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07.

154)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82-184.

155) Ibid., 227-228.

156)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60.

지의 흐름 자체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론은 본론과 잘 연결되어야 한다. 서론이 본론과 상관이 없을 경우 설교의 중간이나 후반에 들어가면 서론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설교 후반부에 들어가서 서론을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서론은 단순하고 흥미가 있어야 한다.¹⁵⁷⁾

2.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결론

결론이란 설교의 마무리 부분으로서 설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절정이다.¹⁵⁸⁾ 즉, 끝을 맺는다, 끝마친다, 맺는다는 말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존 스토틀은 결론에 상당한 비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결론이나 어떤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설교는 목표를 상실한 비극적인 설교의 예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참된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요점의 반복에서 개인적인 적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⁵⁹⁾ 설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설교자들이 결론부분을 제일 소홀히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시합에서 처음에도 중간에도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마지막 결승 라인에서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결론에 와서는 최고의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 토마스 롱은 설교의 결론은 언제 끝낼 것인가와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는 요소라고 설명한다.¹⁶⁰⁾ 실제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설교자들은 결론을 먼저 작성하여 설교전체가 이를 향하여 곧장 진행하도록 꾸미고 있다.¹⁶¹⁾

그러면 결론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선 결론은 청중에게 요구하는 결과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물론 청중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론에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존 맥아더 교수는 *강해 설교의 재발견*이라는 그의 책에서 결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¹⁶²⁾

첫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다.

둘째, 설교의 적용을 설명한다.

157)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08.

158) *ibid.*, 211.

159) 안병만, *존 스토틀 설교의 원리와 방법*, 242.

160)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416.

161)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91.

162) 존 맥아더, *강해설교의 재발견*, 356.

셋째, 청중으로 설교의 호소에 순종하도록 권면한다.

넷째, 요구되는 순종의 시작의 표로 어떤 결정을 요구한다.

다섯째, 양떼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운다.

이러한 목적들은 보통 설교를 통해 직접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들은 좀 더 세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를 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론의 부분에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 설교의 결과,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나의 삶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이다. 우선 결론을 잘 맺기 위한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론에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지 말라. 둘째, 결론을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게 하라. 셋째, 설교한 본문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라. 넷째, 결론을 오래 끌지 말라. 다섯째, 직접적이고 간략하게 하라. 보통 5분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설교로 들어가지 말라. 끝을 맺어라. 일곱째, 청중의 생각과 행동을 결론의 방향으로 이끌어라. 여덟째, 신자, 불신자, 어린 신자, 성숙한 신자 등 모든 청중들에게 해당되도록 결론을 내려라.

한편, 이동원 목사는 그의 책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라는 책에서 좋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¹⁶³⁾고 주장한다.

첫째, 설교의 내용에 알맞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설교의 모든 흐름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요약하여 들려주어야 한다. 상담설교자가 제시한 핵심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고, 어떻게 설교자의 설교가 결론으로 이끌어져 가는지를 알고 그 요점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복은 훌륭한 가르침에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점을 반복함으로써 청중들이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결론에서 설교 전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단지 요약과 강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설교란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치유나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설교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맺어야 할

163)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11-214.

것이다.¹⁶⁴⁾

둘째,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있는 한명의 구체적인 나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거론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중요성은 설교자로부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청중의 실제 생활에 명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모두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결론을 부정적인 선언으로 마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결론은 적극적인 희망을 담고 있어야 하며, 결론일수록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설교의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는 서론이나 대지의 전개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결론만은 적극적이고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 성경공부가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한국교회 안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식 전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식 전달을 강조할수록 그 성경공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필요한 토론, 논쟁 등을 통해서 성서연구의 분위기를 초해칠 우려가 있고 백해무익한 결론을 맺을 때가 많다. 비록 이러한 성경공부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때로 성경공부 인도자들도 결론에 해당되는 질문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성경공부 교재를 만든 저자의 의도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일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기초로 할 때, 오늘 내 삶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자기 삶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 자신의 삶에 나타난 갖가지 실패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부분이 결론인데, 이 부분을 취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 쉽게 해답을 쓸 수

¹⁶⁴⁾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417.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마지막 삶의 적용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야 하며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시와 도전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또한 적용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설교의 응답으로 좋은 간증들이 나오기도 한다.

다섯째, 의지의 변화를 향한 결론이어야 한다. 의지에 호소한다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또는 감성을 통해서 지식의 영역을 지나서 의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은 의지의 결단이므로 설교의 마지막 접근은 항상 의지를 향한 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서론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면, 결론은 디저트와 같다고 했다. 어떤 디저트를 먹느냐에 따라 끝이 상쾌할 수 있는 것이다. 디저트가 많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결론 부분도 많은 양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개 그 자체가 잘 되면, 어떤 결론도 약 5 퍼센트 미만으로 충분히 성립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귀납법에 의한 결론이어야 한다. 귀납법적인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도 귀납법적인 접근을 사용할 때가 있다. 즉, 서론 부분에서 설교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들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이한 결론보다는 결론을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어떤 시 또는 인용구, 극적인 뉴스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론을 꼭 연역법적인 방법이 아닌 귀납법적인 결론으로 끝낼 수도 있다. 반면에 너무 귀납법적인 방법에 매달려 있다 보면 결론이 분명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뚜렷한 직설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에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법적인 방법을 잘 조화 있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결론 부분이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떤 때에는 갑자기 마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감동을 줄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폴 화이트맨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는 충격적으로 시작하여 마칠 때에

는 완전히 마치라.”고 말하였다.¹⁶⁵⁾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의 결론은 새로운 진리들을 소개하기 보다는 배우고 깨달은 진리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부모의 심정으로 호소하면서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 4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예화사용과 적용

1.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예화 사용

예화는 보기를 들어서 설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예화는 청중들이 설교자가 전하는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설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개인이나 사건의 설명 혹은 장면 묘사를 의미한다.¹⁶⁶⁾ 스펀전 목사는 설교의 예화와 관련해서 설교가 집이라면 예화는 창문에 해당한다고 비유하였다.¹⁶⁷⁾ 사방이 벽만 있고 창문이 없는 집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기 된다. 반대로 사방의 벽이 온통 창문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도 불안정할 것이다. 제이 아담스는 참된 적용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화는 진리를 오래 기억하게 해 준다.”고 말하였다.¹⁶⁸⁾ 이처럼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예화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설교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 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의 예화는 다른 형태의 설교에서의 예화보다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생활적일 수 있다. 게리 고틀브렌슨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담은 예화자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화사용을 위한 세 가지 안전장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첫째는 개인적인 이야기 보다는 수많은 사건이 다루어진 일반적인 상황들을 더 많이 예화로 사용한다. 둘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 셋째로, 이 교회에 시무하기 전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해야 하며, 예화에 나오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해야 해야 한다.

165)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92. 에서 재인용

166) James Braga,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227.

167)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15.

168) 제이 E. 아담스, *설교의 적용을 돕는 사례들* (서울: 그 말씀, 1998, 6월호), 74.

예화는 사실을 보다 믿기 쉽게 만들어 준다.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드는 것이 곧 진실의 증명으로 사용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주장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해 주는 것이다.¹⁶⁹⁾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에 반응을 보이도록 하려면 일반적으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예화를 사용할 때는 그 청중에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 사람에게 도시의 예를 들고, 실패하여 고통 하는 회중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든다면 듣는 회중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 중의 예화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 설교자들이 예화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토마스 롱은 *증언으로서의 설교*란 그의 책에서 설교자는 예화를 설교자 자신의 삶에서, 설교자의 상상력에서, 주변세계에서, 대중매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¹⁷⁰⁾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학적 자료이든지 비신학적 자료이든지 둘 다 정기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예화는 거의 다 성경에 담겨 있다. 사실은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화의 원천이요 예화의 창고와도 같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항상 행동을 설명하는 말과 그것과 어울리는 행동으로 입혀져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인간 역사 안에서 행동으로 표시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신약 진리의 예화집과 같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도 그들의 메시지를 적절한 예화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새 허리띠를 취하여 두르라는 말씀을 받았다. 얼마 후에 그는 되돌아가서 그 허리띠를 찾았으나 쓸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모든 행동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포로기간 동안에 내릴 심판을 예증하는 방식이었다.¹⁷¹⁾

예수님도 그의 설교에서 다양한 예화들을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서 주님은 다윗의 예화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였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¹⁷²⁾는 아주 훌륭한 예화이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뛰어난 예화이다. 이와 같이 예화를 사용하는 목

169)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71.

170)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385-391.

171) 렘 13:1-7.

172) 눅 10:30-37.

적은 설교 메시지를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회중을 설득시키고 감명을 주는데 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서도 절적인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예화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인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말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본인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 내용이 듣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예화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부담을 주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상담 설교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설교의 예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중의 사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잘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경우에 예화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하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가족 혹은 부부 치유 프로그램 중에 유사 상황을 만들어서 청중들을 공감하게 함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유사상황 만들기라 하는데 이 기법은 비유를 사용하는 증재방법이다.¹⁷³⁾

그러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예화를 사용할 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¹⁷⁴⁾

첫째, 예화는 주제를 살릴 수 있고 주제와 일치해야 한다. 예화는 가급적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과장 되거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일수록 설득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적인 예화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실화가 더욱 생생한 효과를 내고 설득력이 있지만 상상력을 동원한 있을 법한 예화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예화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의 할 것은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밝은 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과장하여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¹⁷⁵⁾ 언제나 합당하고 품위 있는 단어를 골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화는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를 내포해야 한다. 무미건조한 딱딱한 전달보다

173) 로버트 서먼 & 노만 프레드만, *부부가족치료기법*, 김영애 역(서울: 하나의학사, 1988), 61.

174)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15-218.

175) 존 맥아더, *강해설교의 재발견*, 353.

는 움직이고 색깔이 있는 그런 극적인 예화가 설득력이 있다. 회중이 들으면서 그들의 머리 속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예화, 함께 느낄 수 있고, 구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예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생생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예화의 내용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예화는 설명하려는 진리와 부합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예화를 위한 예화도 있는데, 그런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 예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화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 설교에서 너무 많은 예화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화는 회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보편 타당해야 한다.

넷째, 예화는 가능한 짧을수록 좋다. 예화가 길어지면 예화 중심의 설교로 전락되기 쉽다. 상담설교라고 해서 예화시간이 성경강해의 시간보다 더 길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예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복잡하고 장황한 예화를 피하고, 그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화는 흥미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예화가 흥미가 없다면 그 예화는 가치가 없을 것이다. 예화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지만 그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청중들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움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예화를 반복하여 회중이 식상하지 않도록 하고, 예화 도중에 설교자의 감정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예화는 경험적인 맥락에서 회중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추상적이거나 회중의 삶과 상관없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한 예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모든 설교에서 예화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¹⁷⁶⁾

일곱째, 좋은 예화를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명한 목회자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중에게 같은 예화를 반복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예화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화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예화들은 수집해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⁷⁷⁾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곳에서 예화를 찾을 필요는 없다. 예화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17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15-218.

177) James Braga, *설교준비*, 237-238.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화를 얻는 열쇠는 끊임없이 찾고, 수집하고, 정리하며, 예화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분별력에 있다.¹⁷⁸⁾ 많은 설교자들이 예화집에서 예화를 찾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예화집보다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예화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에서도 좋은 예화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설교자들은 일상생활이나 상담, 그리고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적절한 예화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화들을 잘 정리하여,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이다.

2.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적용

적용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적용은 설교자가 회중 개개인들로 하여금 선포된 메시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선포된 말씀의 초점을 개개인에게 맞추는 작업이다.¹⁷⁹⁾ 특히 상담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 상담설교는 그 형태상 삶의 정황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중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회중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상담설교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경험들을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갈 위험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서의 설교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설교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개 강해설교는 이런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만, 제목설교의 경우는 종종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¹⁸⁰⁾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도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어떤 집단 상담과 치유가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사례중심으로 무리하게 설교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적용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제이 아담스는 “적용은 실례, 예화, 이야기 등을 사용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⁸¹⁾고 말한다. 또한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도 적용하

178) 존 맥아더, *강해설교의 재발견*, 351-352.

179) James Braga, *설교준비*, 227.

180)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100.

는 일이다. 데니스 레인은 이러한 적용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아무리 비행기가 높이 오르고 멀리 간다하여도 바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즉,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아야 비로소 여행이 끝나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있는 지점까지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땅에 닿기 전까지는 그 비행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설교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때까지는 설교한 것이 아닌 것이다.¹⁸²⁾ 적용은 적용 전 단계까지의 설교에서 말한 것을 결론에서 종합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때에는 전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그들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해답을 갖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효과가 없는 설교가 되고 말 것이다. 설교자가 회중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설교자는 의식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용을 통하여 말하여야 한다. 그 적용을 통하여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 아담스는 설교란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회중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다¹⁸³⁾ 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설교를 적용된 진리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비유도 적용된 진리라고 주장했다. 즉, 적용은 청중들을 겨냥한 이야기 안의 여러 요소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청중에게 실제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은 진리가 적용된 유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¹⁸⁴⁾ 이와 같이 상담설교에서 적용은 설교가가 상담기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서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듣는 회중에게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 상담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상황이나 상태, 그리고 필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

181) 제이 E. 아담스, *설교의 적용을 돕는 사례들*, 72.

182)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자료모음*, 225.

183)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81-82.

184) 제이 E. 아담스, 81.

로 실례들을 적절히 개발하고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상담설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다.¹⁸⁵⁾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이러한 적용이 그 설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효과적인 적용이 되려면 청중들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를 듣는 일반 회중들은 교역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쉽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의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래 집단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알게 되고 또한, 또래 집단에서 서로의 삶이 나누어지도록 하여서 설교자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게 하면 청중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회중들의 관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설교자의 수준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회중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회중들의 삶의 현장을 심방하여 그들의 형편을 살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고 기도로 세워주며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큰 도움이 된다.¹⁸⁶⁾

적용의 목표는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이 설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들은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이 내 삶에 정확하게 투영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적용을 설교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적용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설교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적용부분은 설교가 나와의 관계를 맺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부분이므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한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옷 입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과감성 있게 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185) 제이 E. 아담스, *설교의 적용을 돕는 실례들*, 84.

186) 김만풍, *상담설교*, 46-47.

것은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옷을 잘 입혀서 적용해야 한다. 혹시 너무 강하게 명령하거나, 위압적으로 나무라듯이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사도바울은 적용의 핵심을 가르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의 변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기에, 적용도 또한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을 강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정임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 머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다.¹⁸⁷⁾

대체적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원리도 일반 설교의 원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즉, 모든 설교에는 적용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설교에서 말한 모든 것이 회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적용부분에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 모두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¹⁸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적용에서는 상담설교가 이미 회중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행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상담의 기법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던시대의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미주 목회 2005년 5월호에 글을 기고한 계지영 교수는 새들백 교회의 릭워렌 목사를 예로 들면서 로마서의 16개의 장중에서 절반이 적용부분인 것을 근거로 우리의 설교에서도 적용이 절반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르스 윌린슨 목사가 칼빈과 찰스 스펄전, 무디, 피니, 그리고 현대 설교자들인 찰스 스텐리, 척 스윈돌의 설교를 조사해 보니 그들의 설교에서도 약 50-60퍼센트는 적용이며, 어떤 경우에는 설교의 70퍼센트가 적용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더그 머렌 목사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을 향해 설교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청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이며 둘째는, 회중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청중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이다. 그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 연관성과 적용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¹⁸⁹⁾고 말하고 있다.

설교학자인 해돈 로빈슨은 “설교에서 성경주해 보다는 적용부분에서 더 많은 실수

187) 왈터 헨리슨, *성경 어떻게 적용할까?* (서울: 목회자료사, 1990), 44-45.

188) 존 맥아더, *강해설교의 재발견*, 471.

189) 계지영, “포스트 모던시대의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미주목회*, 2005년 5월호, 116.

가 발생한다.”¹⁹⁰⁾ 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말이다. 또한 상담설교의 적용은 공동체적인 적용 보다는 개인 개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문제의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은 구름 잡는 이야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이고, 회중들의 삶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용은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들은 후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서 관계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 생활가운데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서 발견 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적인 행위이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생활의 변화는 먼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¹⁹¹⁾ 라고 말하고 있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마음이 변화 되어야 삶이 변화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본보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 부분과 충고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회중들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깨달도록 적용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계 지영 교수는 미주목회 5월호에 기고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들에게는 우선 청중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과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사회적인 삶의 스타일과 그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내용을 이미지 하여 대화체로 전하며, 교리적인 설교에 그치지 말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¹⁹²⁾

190) 해돈 로빈슨, *성경의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으로* (그 말씀, 1998년 1월호), 34.

191) 롬 12:2.

192) 계지영, “포스트 모던시대의 설교는 어떠해야하는가,” 112.

제 5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전달 기술

빌 하이벨스는 그의 책 *현대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두 가지 결정적인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다.¹⁹³⁾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전달방법의 문제가 있다.¹⁹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전달기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전달이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어떤 규범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설교이다. 즉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형식은 설교본문의 특성에 따라 설교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설교인 것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전달 기술보다는 오히려 먼저 설교를 듣는 회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중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예리하게 찾아내어 그들의 삶에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상담설교에 있어서 기억할 만 한 네 가지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쉬운 그림 언어로 간결하게 전달하여야 한다.¹⁹⁵⁾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란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성경을 모르는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미국에 사는 회중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년수에 차이가 많아서 교회언어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쉬운 그림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193) Bill Hybels, *현대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핏볼, 1993), 31-33.

194)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22.

195)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 1997), 188.

에서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그림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달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성경에도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이미지, 상징, 비유 같은 그림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언어는 성경말씀을 설득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탁월하다.¹⁹⁶⁾ 그러므로 설교자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언어보다는 청중들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목회자가 어렵거나 난해한 말을 쓰지 않고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말씀에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달의 정확성은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내용이 충실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전달이 정확하지 못하면 설교 효과는 감소한다. 특별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 위험성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단어사용이나 너무 추상적인 단어 사용보다는 명확하고 적합하면서도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청중에게 다가서야 한다.¹⁹⁷⁾ 설교가 상호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 즉 순환이 없는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설교는 청중에게 다가서야 하고 항상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통찰력 있는 설교자는 자신들의 눈과 귀로써 입을 조정할 수 있다.¹⁹⁸⁾ 그래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 청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희생이 요구된다.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¹⁹⁹⁾ 라고 말한 것도 단지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사도는 전도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서도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한다. 설교자의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화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청중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해돈 로빈슨은 다양한 욕구들을 지니고 있는 청중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중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와 도망하려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 김지찬, *보이는 설교를 하라* (서울: 그 말씀, 1998, 6월호), 25.

197) 해돈 로빈슨, *다양한 회중과 효과적인 설교전달* (서울: 그 말씀, 1999, 7월호), 21-29.

198) Warren W. Wiersbe 외, *심령을 꿰뚫는 설교를 합시다* (서울: 나침반, 1996), 50.

199) 고전 9:22.

나, 청중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길 원한다.
 다, 청중들은 웃고 싶어 한다.
 라, 청중들은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
 마, 청중들은 감동을 받고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 청중들은 설교자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도 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원한다.²⁰⁰⁾

그래서 설교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전달 과정에서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게 관심을 끌면서 흥미롭게 전해야 한다.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안은 “연사의 말 중 그 효과에 있어서 겨우 7 퍼센트만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38퍼센트는 음성에 의해, 그리고 55 퍼센트는 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²⁰¹⁾ 고 주장 하였다. 청중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해지고 있는 설교가 내게 꼭 필요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면 청중들은 시선을 집중할 것이고, 흥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 관심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중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선한 결심이나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런 변화를 나타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 쓰니라.”²⁰²⁾ 베드로 사도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200) 해돈 로빈슨, *다양한 회중과 효과적인 설교전달*, 26.

201)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24. 에서 재인용.

202) 행 2:37-42.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²⁰³⁾ 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선한 결심들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전달 내용에 위로와 교훈이 함께 있어야 한다. 좋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책망과 위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영적인 감화를 준다.

셋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과의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²⁰⁴⁾ 그래서 설교자의 기본자세는 우선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겸손으로 옷 입지 않으면 천박해 지기가 쉽다. 설교자의 겸손이란 자신의 실력이나 재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언제나 설교자는 투명하면서도 솔직해야 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구도자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실패담이나 신앙고백 등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한 과거의 간증이나 신앙고백은 결코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설교자의 간증이나 경험들을 나눌 때에도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본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신기한 내용, 인기를 위한 내용을 강조해서 청중에게 전달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즉 청중의 갈채만을 의식하므로 진짜 본문 속에 있는 복음의 중심을 소홀히 전달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자랑만을 너무 강조한다면 설교의 중심은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설교전달의 실패자가 된다. 그러므로 인기를 얻기 위한 전달을 피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원고에 매이지 말고 회중과 수시로 시선을 맞추면서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고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 자연히 건조해 지고 회중들과 교감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것이다. 상담설교자는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여야 한다. 설교를 하면서도 성대에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도 회중이 정확히

²⁰³⁾ 행 4:10-12.

²⁰⁴⁾ 임영수, “말씀의 전달은 신뢰관계위에서 피어납니다,” *그 말씀*, 1999년 7월호, 10.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스처도 문맥에 어울리는 제스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청중과 동일시하면서 설교해야 한다.²⁰⁵⁾ 즉 현대의 설교는 권위적인 설교에서 삶을 말하고 나누는 설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포로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였다. 설교자들은 청중들과 의도적으로 자신을 동일시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권위의 수사법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 설교 모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담설교에도 설득이 중요하다. 유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설교의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데 있다면 설득하는 것은 설교자의 의무일 것이다. 설교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게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청중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자는 청중과 동일시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나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내용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설교는 원고상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에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계지영 교수는 “설교는 문자나 인쇄물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설교자의 언어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다.”²⁰⁶⁾라고 말했다. 말씀의 전달은 설교자와 청중의 신뢰 관계 위에서 전달된다. 좋은 내용을 담은 설교라도 전달하는 데에 실패하면 설교의 효과는 반감된다. 한 설교학자는 회중에게 부적당하게 선포된 설교는 사산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²⁰⁷⁾ 그래서 설교를 잘 전달하려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설교 전달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를 준비 할 때에는 먼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성을 해야 하며, 시

205) 크레이그 로스칼조, *청중과 동일시화 하는 설교* (서울: 그 말씀, 1999, 7월호), 26.

206)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195.

207) 해돈 로빈슨,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정장복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186.

간도 고려해야 한다. 설교도 다음 기회에 다시 사용하려면, 원고를 다 써는 것이 좋다. 설교문을 다 쓰게 되면 쓰면서 읽고 외우기 때문에 실제 설교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설교문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이 읽어보고 실제 상황과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은 원고를 준비하더라도 간단한 메모의 분량으로 줄여서 강대상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지나치게 원고를 의존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도들과의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가는 언제나 회중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설교해야 한다. 그래서 회중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면서 설교해야 한다.

설교를 전달할 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세로 전하게 되면 무미건조하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시 전신을 다 사용하여 설교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설교의 단상 위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산만한 제스처로 생각된다. 우선 설교가는 성도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의 어려운 삶이나 힘든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자가 말을 시작하지 않아도 그가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이미 설교는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짓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의 얼굴에는 500가지의 서로 다른 표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스처는 설명적이요, 인상적이요, 직접적이어야 한다.²⁰⁸⁾ 커뮤니케이션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정적 활동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동적인 활동”²⁰⁹⁾인 것이다.

모든 설교자는 자신의 음성을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 나는 불쾌한 느낌을 주는 억양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긴장된 음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좋은 음성을 지닌 설교자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의 목소리도 그다지 낭랑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순히 목소리만 좋게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설교를 할 때에 마이크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때때로 설교를 녹음해서 적절하게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살펴

²⁰⁸⁾ 데이빗 L. 라슨, *설교의 전달을 높이는 방법* (서울: 두란노 서원, 1999), 46.

²⁰⁹⁾ 김영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2001), 17.

보아야 할 것이다. 토마스 롱은 설교를 잘 하려면 자연스러워지라고 충고한다.²¹⁰⁾ 그러므로 음성도 목소리를 너무 높이거나 거룩한 목소리를 내려고 부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목소리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설교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²¹⁰⁾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405-6.

제 6 장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평가

필립스 브룩은 “설교는 인간에 의해 인간에게로 전해지는 진리의 통로이다. 그것은 그 자체에 두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진리와 인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요소라도 결핍되면 설교를 행할 수 없다.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 진리는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요소이며 인격은 변화하며 성장하는 요소이다.”²¹¹⁾ 라고 말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설교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고 해서 설교가 완전히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하는 설교자가 자신이 행한 설교처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설교를 마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었음을 감사하면서, 전달된 말씀이 청중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른 설교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를 마친 후 설교의 내용과 성도들의 반응 등을 평가하여 날마다 나아지고 성장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교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 1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주관적인 평가방법

먼저 설교자의 주관적인 설교평가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설교자는 이 주관적인 평가를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는 교인들로부터 설교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듣기가 어렵다. 그 주된 요인은 설교자의 설교가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 성장하기 보다는 설교는

²¹¹⁾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2), 287. 에서 재인용.

목회자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인들은 설교를 공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회자와 관계가 혹여 불편하게 될까 염려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가 되어서 각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설교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하여 평가하기란 더더욱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평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해돈 로빈슨은 그의 책 *강해설교* 에서 조직과 내용, 스타일, 전달, 그리고 일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 평가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²¹²⁾

가, 서론의 길이와 도입은 적절하며 주의를 끌었는가?

나, 설교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관련이 있는가?

다, 결론에서 효과적인 호소나 적용 제안이 있었는가?

라, 제목은 설교 내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는가?

마, 설교 내용은 성경적이었는가?

바, 설교의 길이는 적절하였으며 예화는 효과적이었나?

사, 적용은 적절히 잘되었는가?

아, 전달에 있어서 음성의 고저, 변화, 발음은 분명했는가?

차, 정확한 문법과 단어를 사용했는가?

카, 비언어 전달은 어색하지 않게 온몸으로 설교했는가?

타, 설교가 청중 각자에게 살아 있는 감동을 주었는가?

파, 청중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하,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였는가?

그리고 해돈 로빈슨은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이라는 최근의 그의 책에서 설교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교진단이라는 질문지를 실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설교의 진단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구성(Organization), 둘째는 내용(Content), 셋째는 전달(Delivery), 넷째는 청중 적응(Audience Adaptation) 등으로 설교평가를 위한 진단 질문을 제시 하였다.²¹³⁾

²¹²⁾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50-253.

²¹³⁾ Haddon, W. Robinson 외,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544-547.

제 2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객관적인 평가방법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특별히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한다. 거울을 보아야 자신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듯이 함께 사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옳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과장 내지 축소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변호 내지 합리화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은 남이 칭찬해 주면 좋아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들추어내서 말하거나 비판할 때에는 싫어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미완성의 존재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평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성숙해져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필자가 한 설교에 대해서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칭찬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한다고 자만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자신의 설교를 평가하여 더 나은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 보거나 비디오로 보는 방법

녹음한 테이프나 녹화된 비디오 설교를 보면서 자신의 설교 언어와 자세를 수정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평가해 본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것과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점검해본다. 또한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자주 녹음하여 들어보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장기적인 설교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2. 설교를 들은 청중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 방법

필자는 설교를 듣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서 전에 설교 평가 팀을 만들어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신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한 어떤 분은 너무 비판적이 되어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다가 시험

에 드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아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객관적인 평가를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듣는다.

첫째, 내 설교의 서론은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둘째, 나는 청중들과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세워 나가고 있는가?

셋째, 내가 설교를 통하여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넷째, 나는 배움에 도움이 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논리적인가?

여섯째, 나는 성경적인가?²¹⁴⁾

그런 다음에 나의 설교가 기도 중에 나온 말씀이었는지, 나만의 창조적이고 독특한 설교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다는지,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본인이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점검해 본다.

3. 설교 후에 교역자들과 평가회를 하는 방법이다.

본인도 처음에는 교역자 회의 도중에 교역자들에게 설교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았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담임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또 어떤 교역자는 너무 신랄하게 설교를 비판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울무에 걸리는 일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 후에는 교역자 회의 도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과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듣기도 하였다.

제 3 절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종합 평가

때때로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하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과 관심을 끌기도 하고,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단점을 찾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필자는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했던 두 편의 상담설교들을 가지고 설문지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평가를 받아 보았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총 열 다섯 가지의 설문을 제시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쉽고 단순한 질문들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²¹⁴⁾ Haddon, W. Robinson 외,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536.

첫 번 설문 조사는 2005년 12월 29일 목요일 저녁에 했던 설교인데 그때의 설교본문은 전도서 7장: 13-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고통의 날에 해야 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치유를 위한 상담설교를 하였다. 주일날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주일날 설교향상을 위한 설교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고려하여서 성숙한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목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그 후에 설문지 조사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약 4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였고 34명의 설문조사를 받았다.²¹⁵⁾

두 번째 설교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는 2006년 1월 첫째 주일인 신년주일에 본문은 시편 113편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방차원의 상담설교인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는 하나님(The God who lifts us from the ash of Heap)” 이란 설교를 하였다. 당시에 75여명이 모였고 63 명의 설문조사를 받았다. ²¹⁶⁾

필자는 해돈 로빈슨이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이라는 최근의 그의 책에서 설교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교진단이라는 질문지를 토대로 우리 교회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설문지를 만들어 보았다.²¹⁷⁾

구성(Organization)에 대한 질문

서론: 오늘 메시지는 청중의 이목을 충분히 끌고 있는가?

구조: 설교가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가?

결론: 설교에 나온 사상들을 충분히 요약하고 있는가?

내용(Content)에 대한 질문

주제는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인가?

설교자가 하는 말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 시키고 있는가?

설교자의 어휘표현은 생생하고 구체적인가?

²¹⁵⁾ 이 설교는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수교하던 고 강석인 집사를 잃고 교회가 고통 하던 때에 행한 치유목적의 상담설교이다. 설교본문은 뒤편 부록에 전문을 실었다.

²¹⁶⁾ 신년주일에 이중문화권의 남편들과 아내들을 다 참석하게 하여서 통역하면서 2중 언어로 설교하였고,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교하였다. 설교본문은 뒤편 부록에 전문을 실었다.

²¹⁷⁾ Haddon, W. Robinson 외,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544-547.

단어 선택이 설교의 효율성을 더해 주고 있는가?

전달(Delivery)에 대한 질문

설교자가 전달할 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가?

설교자의 목소리는 경청하기에 편하고 명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가?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보기 좋았는가?

청중 적응(Audience Adaptation)에 대한 질문

설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였는가?

설교가 당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청중과의 교감에 대한 질문

1. 설교에 대한 의견 설문 조사서

사인하거나 이름을 쓰지 말고 무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의 인적 사항을 먼저 채워 주십시오.

성 : 남자____; 여자____

나이: 30세미만____; 30-39____; 40-49____; 50-59____; 60세 이상____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설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언급된 내용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에 강하게 동의하면 1, 그냥 동의한다면 2, 잘 모르겠다면 3, 동의하지 않는다면 4, 강하게 반대한다면 5 에다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하고 솔직한 의견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²¹⁸⁾

- | | |
|----------------------------------|-----------|
| 1) 오늘 메시지는 나의 이목을 충분히 끌고 있는가? | 1 2 3 4 5 |
| 2) 설교가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가? | 1 2 3 4 5 |
| 3) 설교에 나온 사상들은 결론에 충분히 요약하고 있는가? | 1 2 3 4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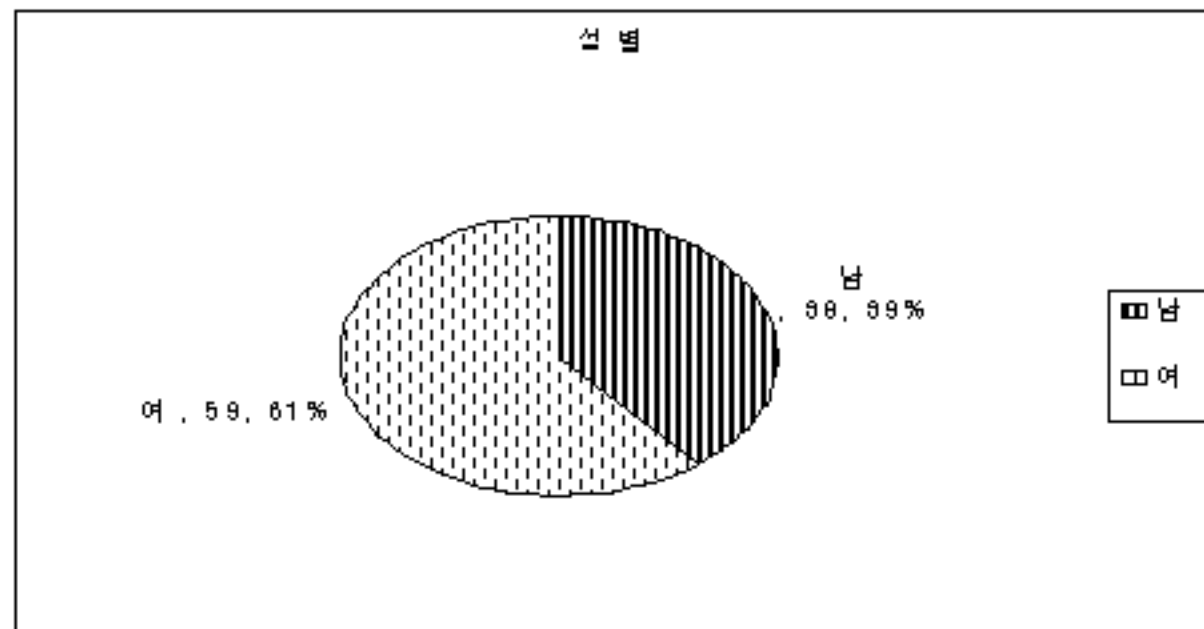
²¹⁸⁾ Haddon, W. Robinson 외,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543.

- 4) 주제는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인가? 1 2 3 4 5
- 5) 설교자가 하는 말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 시키고 있는가? 1 2 3 4 5
- 6) 설교자의 어휘표현은 생생하고 구체적인가? 1 2 3 4 5
- 7) 단어 선택이 설교의 효율성을 더해 주고 있는가? 1 2 3 4 5
- 8) 설교자가 전달할 때 설교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가? 1 2 3 4 5
- 9) 설교자의 목소리는 경청하기에 편하고 명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가? 1 2 3 4 5
- 10)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보기 좋았는가? 1 2 3 4 5
- 11) 설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였는가? 1 2 3 4 5
- 12) 설교가 당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1 2 3 4 5
- 13) 설교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1 2 3 4 5
- 14) 나는 설교자와 일체감을 가졌다. 1 2 3 4 5
- 15) 그 외에 설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조언해 주십시오.

2. 설교에 대한 의견 설문 조사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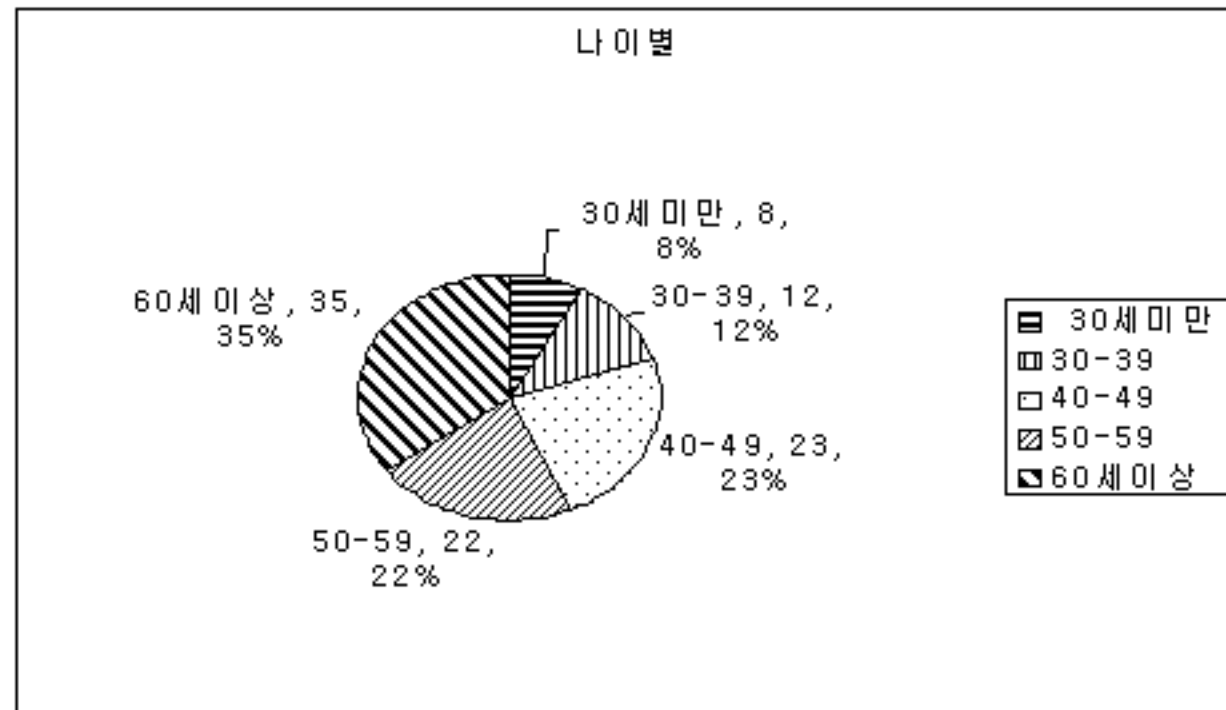
이상 2회에 걸친 상담설교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총 설문지 총 97개(첫 번 34명 응답, 두 번째 63명 응답)의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지를 종합하여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2회 참가 합계): 남 38, 여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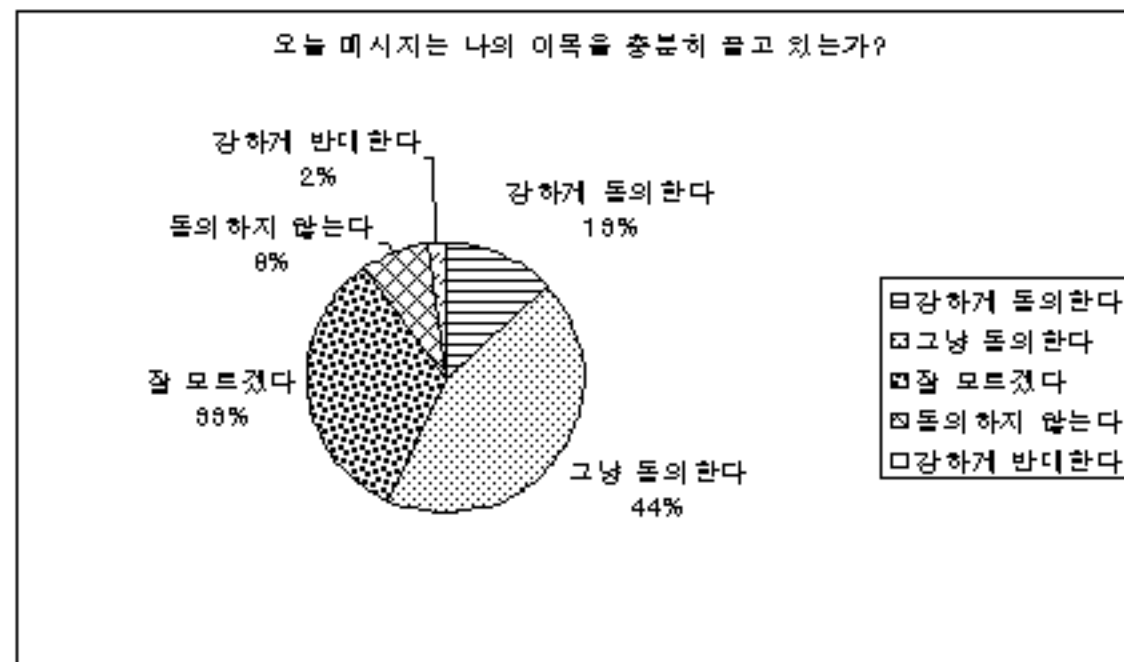
나이별 분포(2회 참가 합계): 30세미만: 8명 ;30-39세: 12명;

40-49세: 23명; 50-59세: 22명; 60세 이상: 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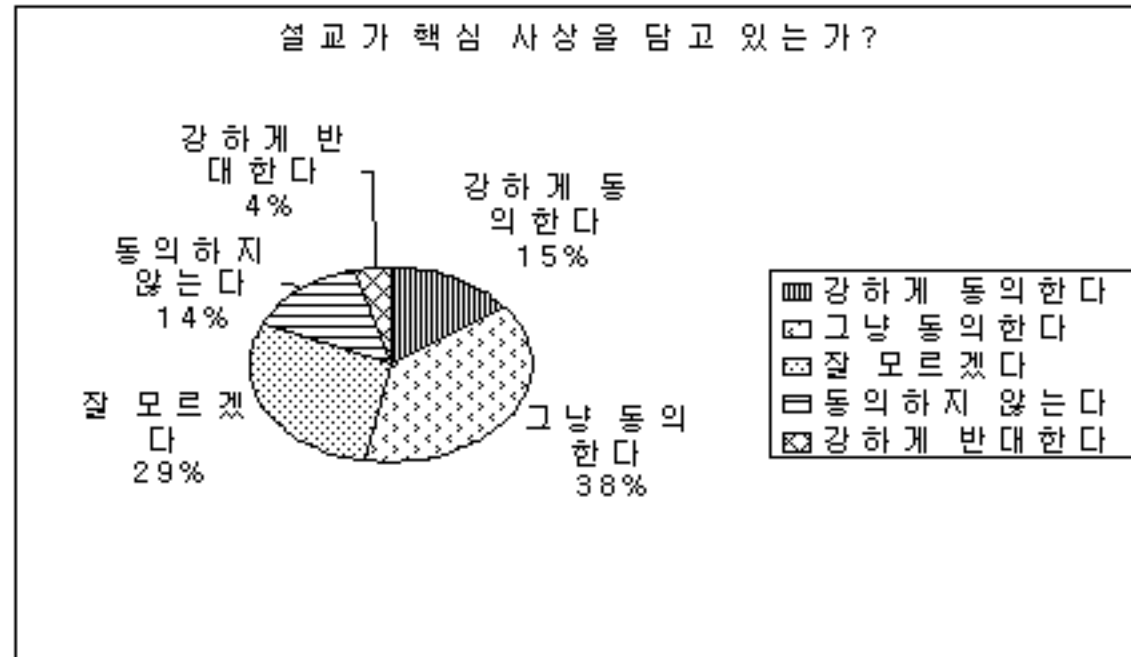
1) 오늘 메시지는 나의 이목을 충분히 끌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3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44 퍼센트)
 C. 잘 모르겠다.(33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8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2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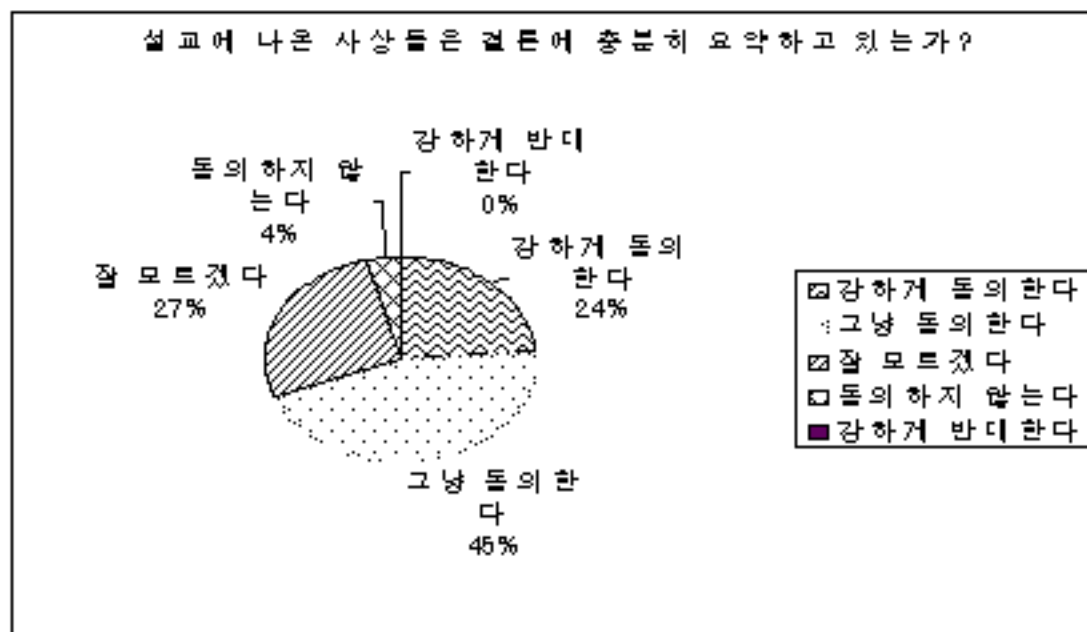
2) 설교가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8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52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6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2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2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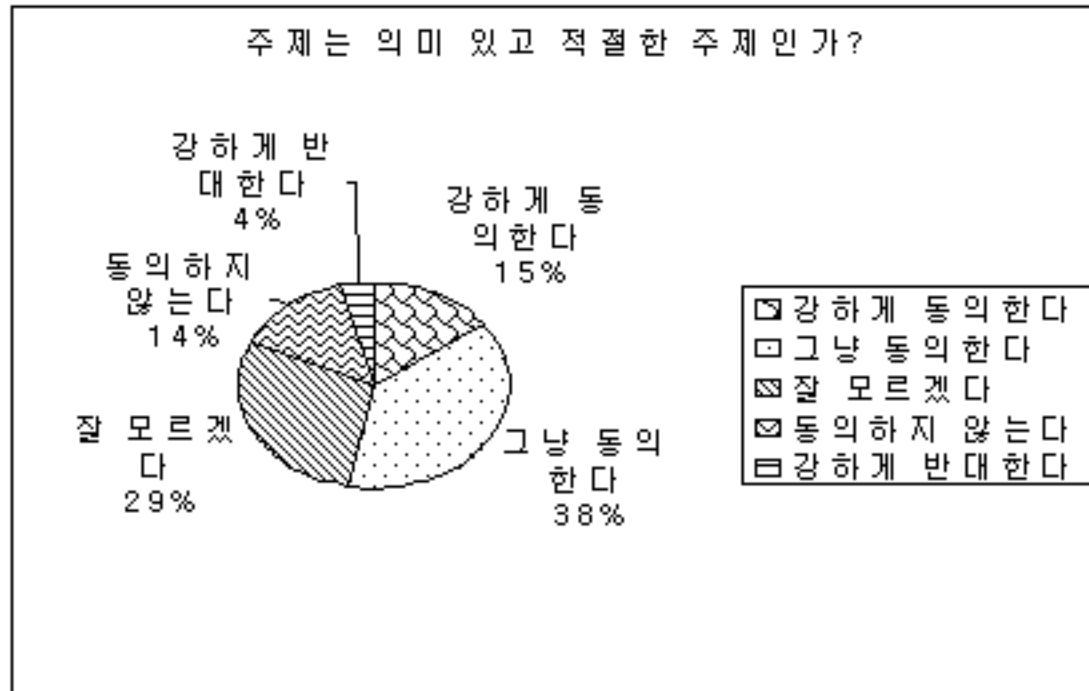
3) 설교에 나온 사상들은 결론에 충분히 요약하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24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45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7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4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0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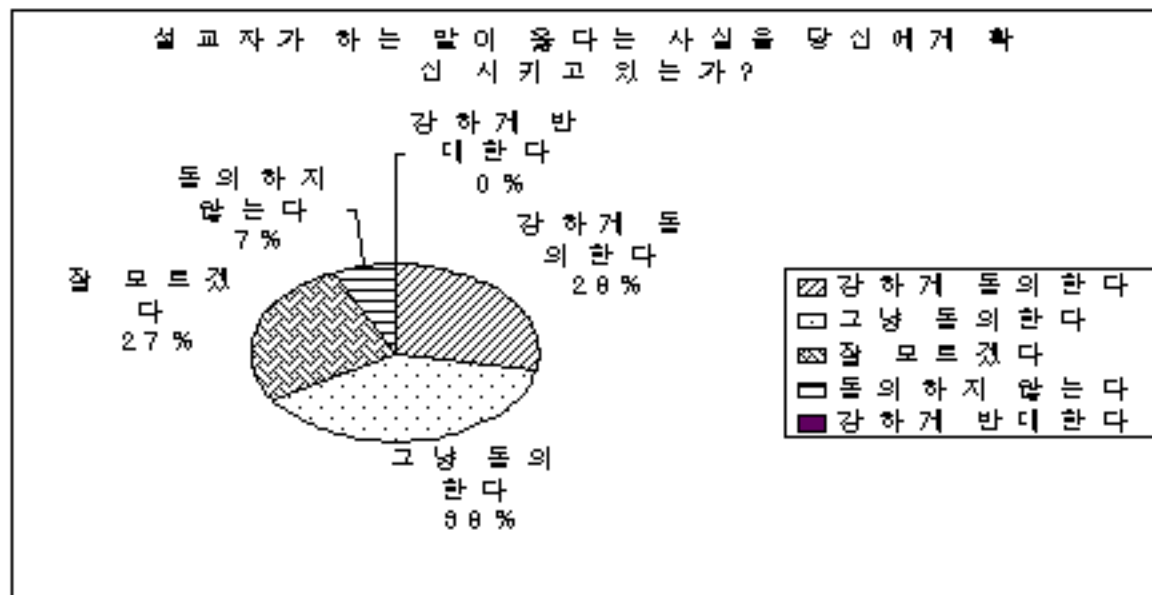
4) 주제는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인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5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8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9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4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4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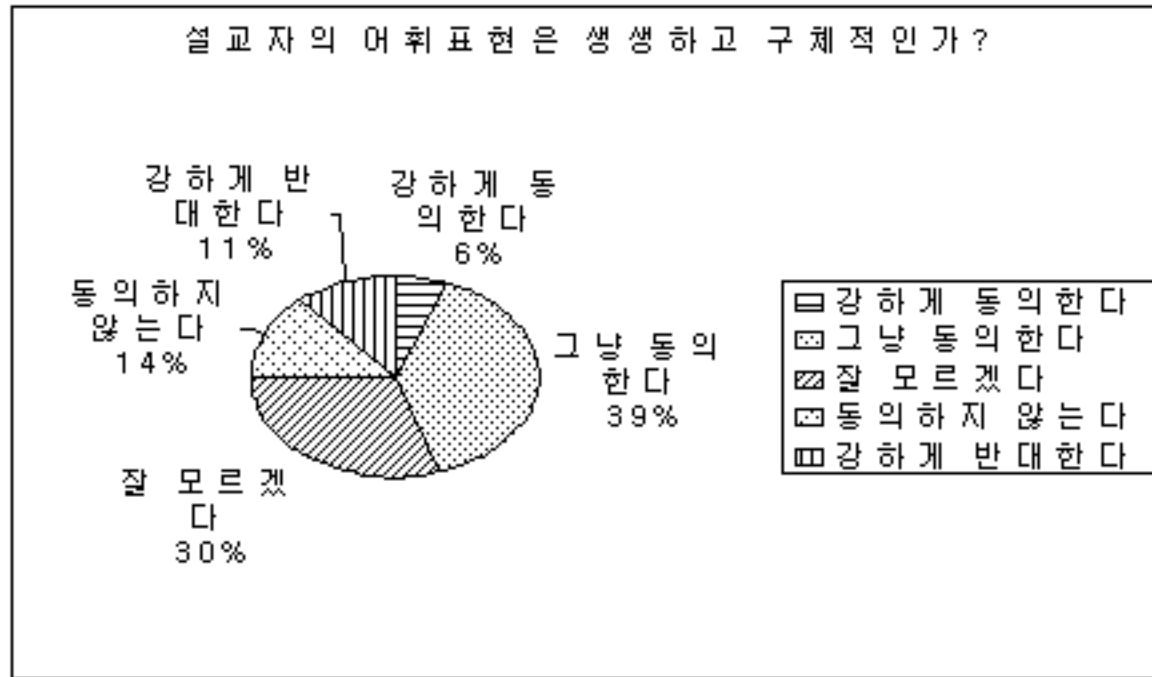
5) 설교자가 하는 말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 시키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28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8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7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7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0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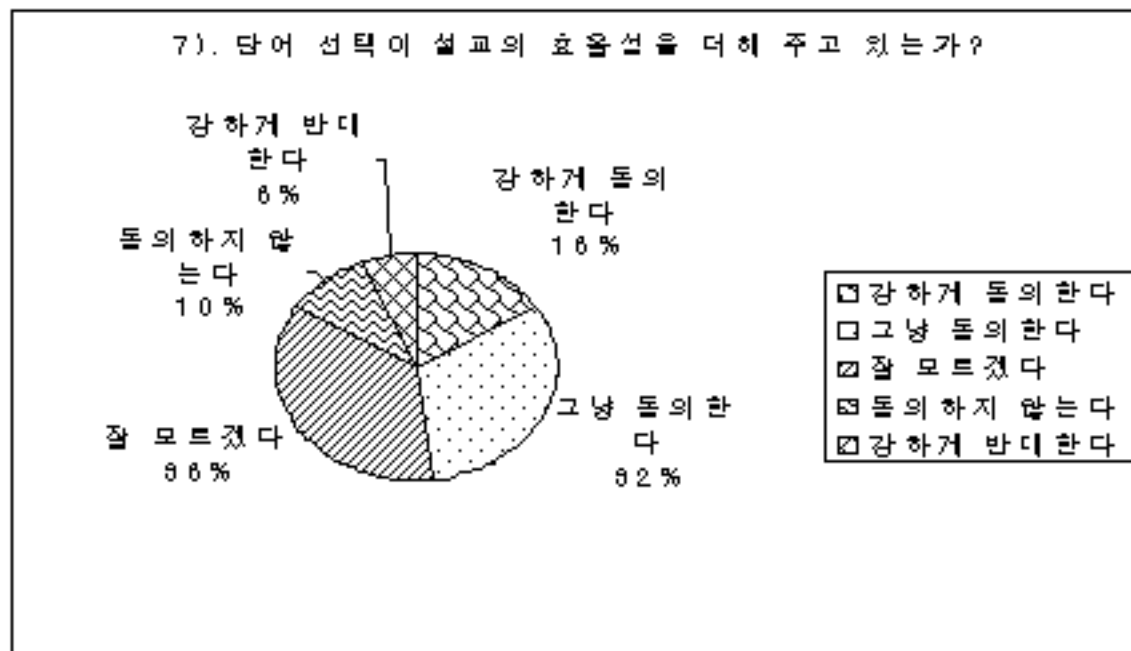
6) 설교자의 어휘표현은 생생하고 구체적인가?

- A. 강하게 동의한다.(6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9 퍼센트)
 C. 잘 모르겠다.(30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4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11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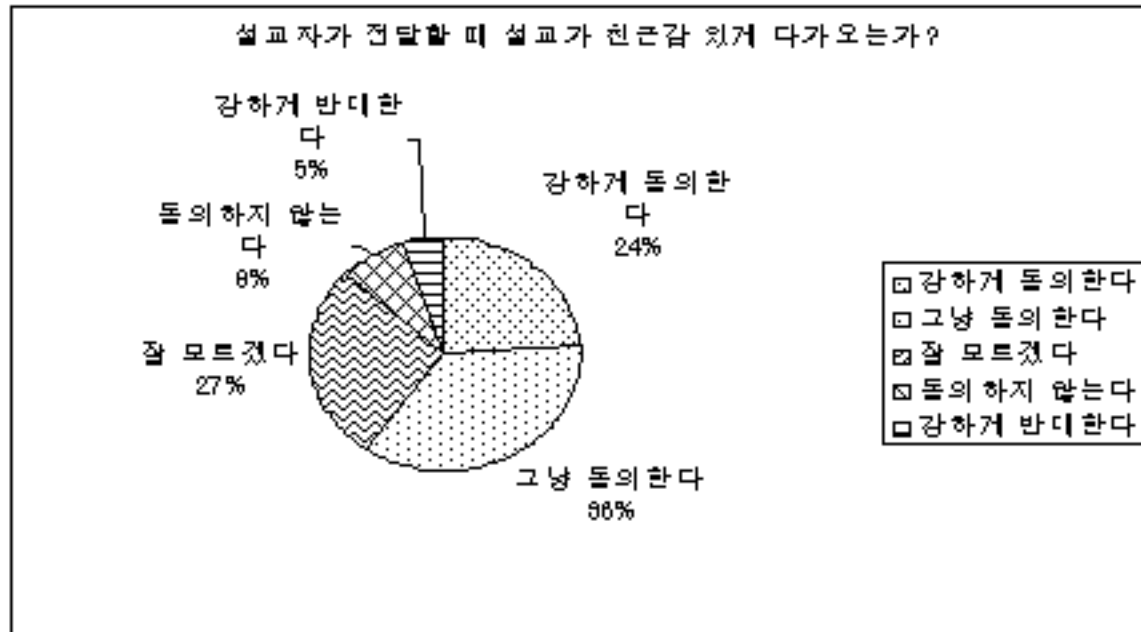
7) 단어 선택이 설교의 효율성을 더해 주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6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2 퍼센트)
 C. 잘 모르겠다.(36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0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6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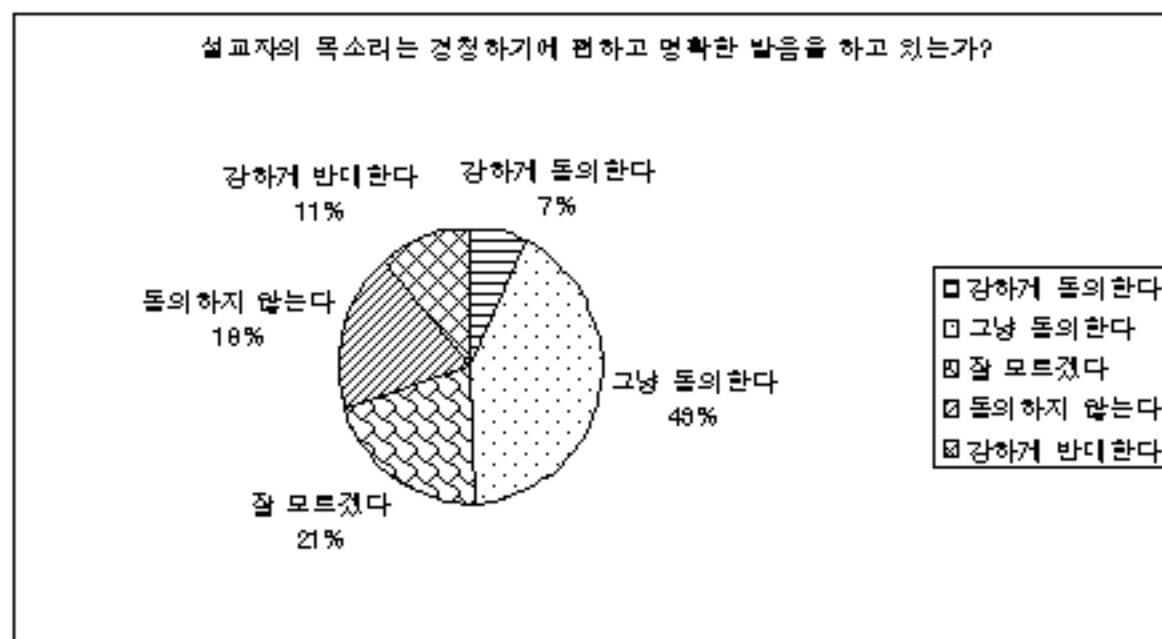
8) 설교자가 전달할 때 설교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24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6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7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8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5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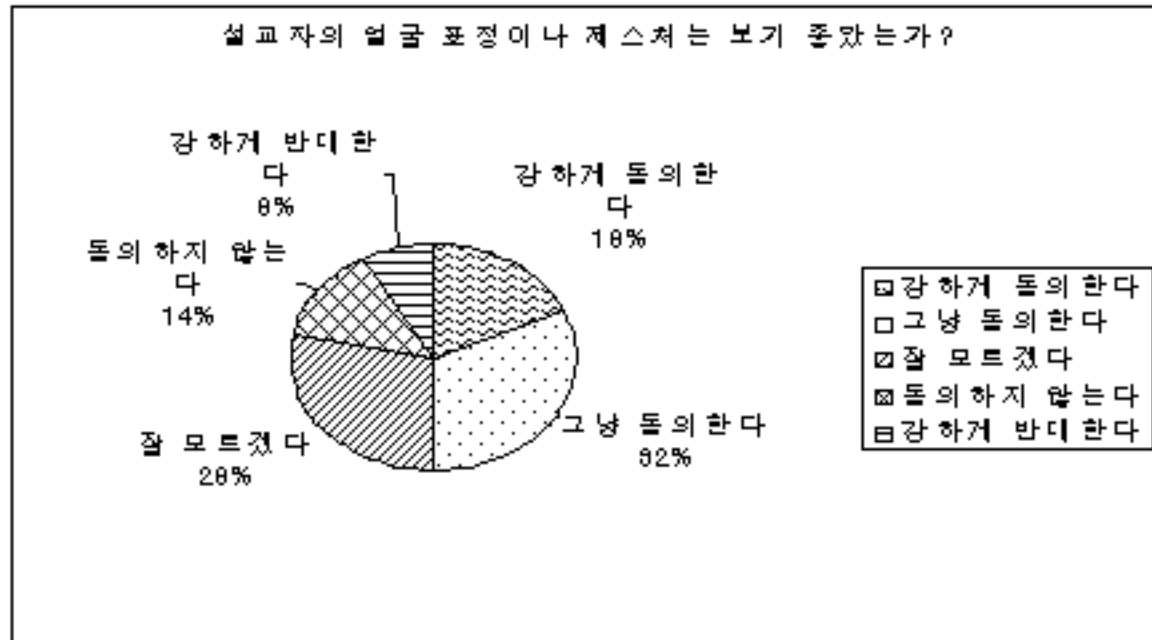
9) 설교자의 목소리는 경청하기에 편하고 명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6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7 퍼센트)
 C. 잘 모르겠다.(18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6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10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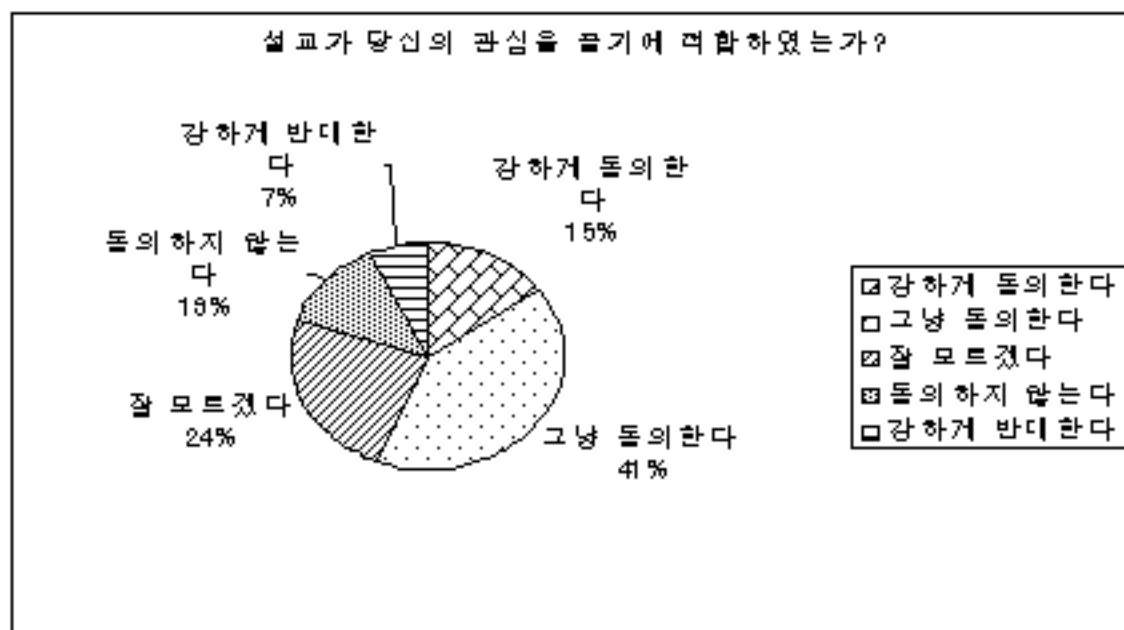
10)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보기 좋았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8 퍼센트)
- B. 그냥 동의한다.(32 퍼센트)
- C. 잘 모르겠다.(28 퍼센트)
- D. 동의하지 않는다.(14 퍼센트)
- E. 강하게 반대한다.(8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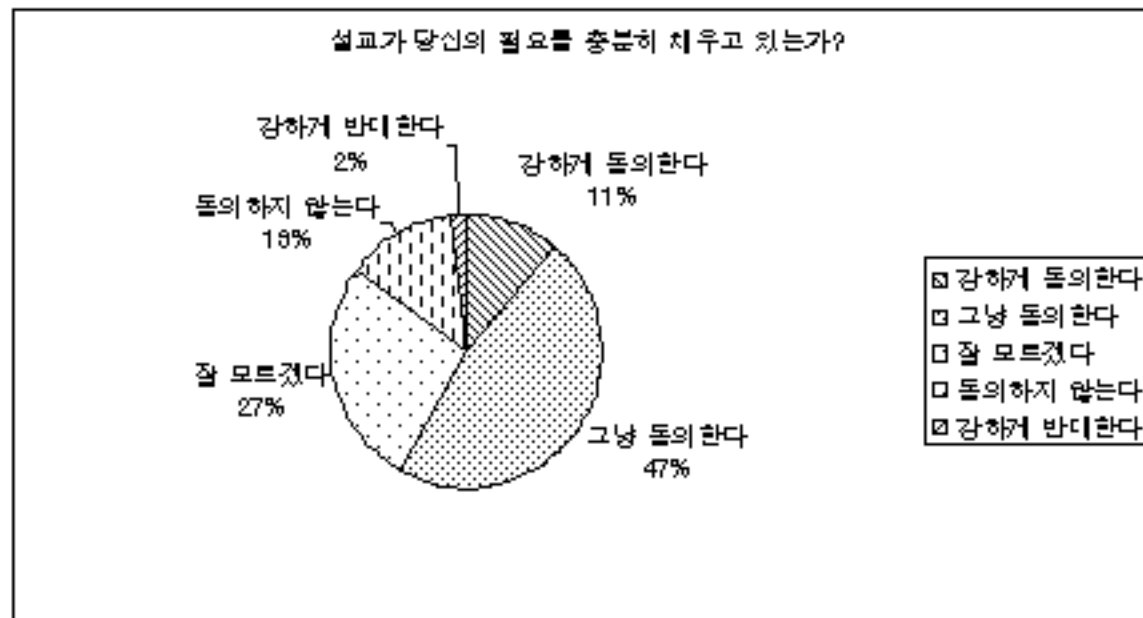
11) 설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였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5 퍼센트)
- B. 그냥 동의한다.(41 퍼센트)
- C. 잘 모르겠다.(24 퍼센트)
- D. 동의하지 않는다.(13 퍼센트)
- E. 강하게 반대한다.(7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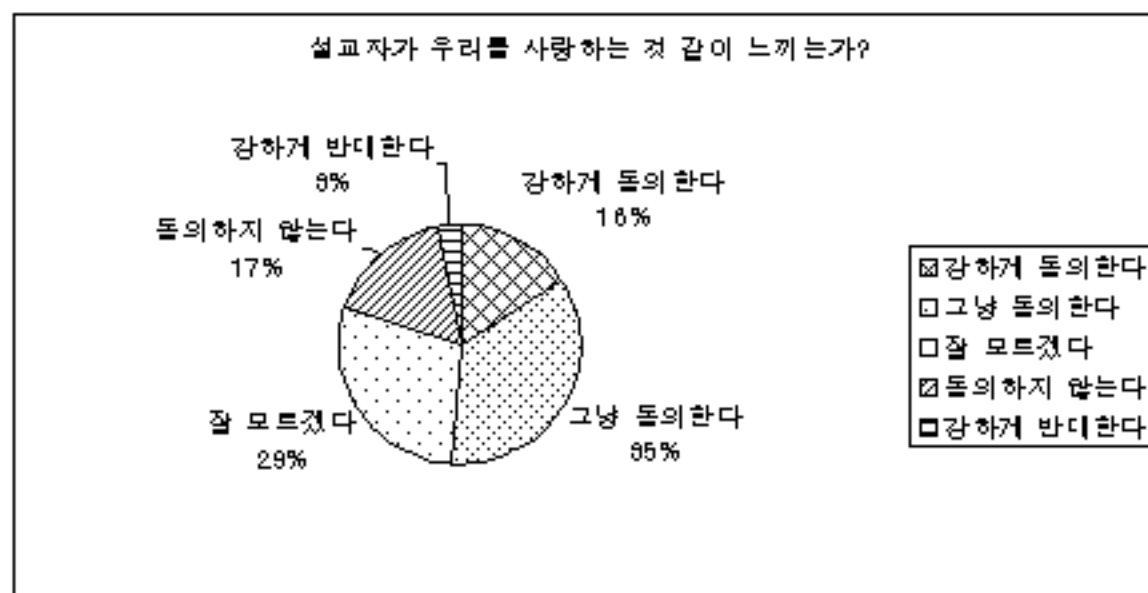
12) 설교가 당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1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47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7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3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2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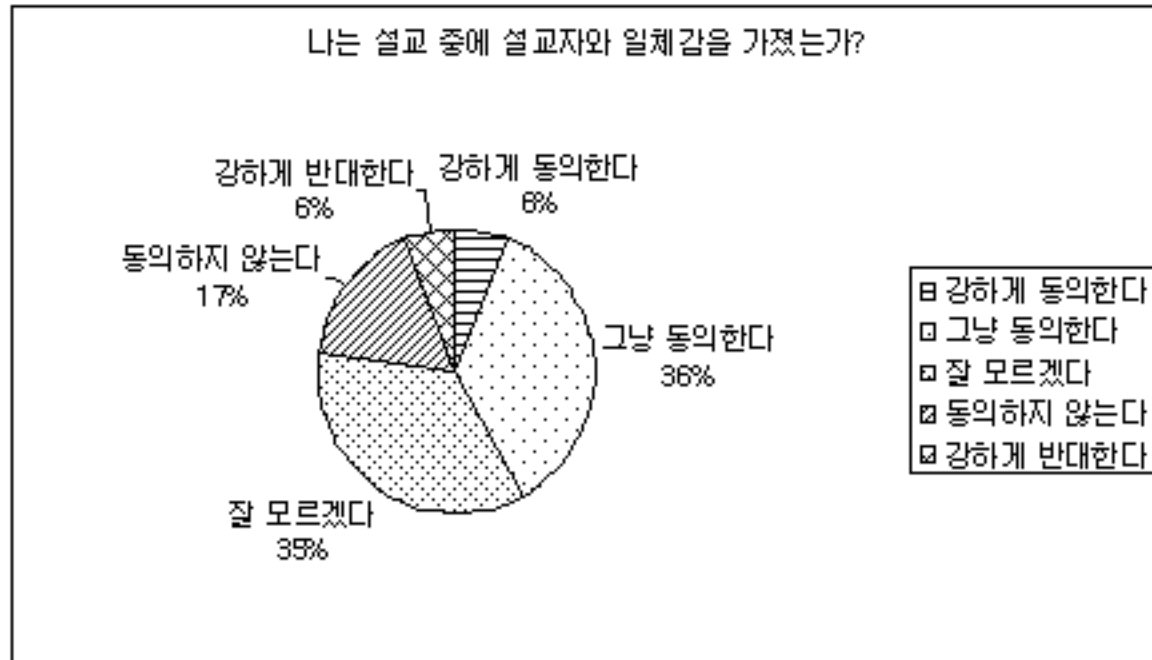
13) 설교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16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5 퍼센트)
 C. 잘 모르겠다.(29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7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3 퍼센트)



14) 나는 설교 중에 설교자와 일체감을 가졌는가?

- A. 강하게 동의한다.(6 퍼센트) B. 그냥 동의한다.(36 퍼센트)
 C. 잘 모르겠다.(35 퍼센트) D. 동의하지 않는다.(17 퍼센트)
 E. 강하게 반대한다.(6 퍼센트)



15) 그 외에 설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조언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는 설교가 너무 길었다, 설교자가 원고를 너무 보아서 머리를 숙이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다, 설교자가 현대 언어보다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 설교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무엇이 주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설교에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대답이 있었다.

2. 설교에 대한 의견 설문 조사서 결과를 통한 종합 진단

필자는 설문지를 통하여 크게 다섯 부분의 질문들을 하였다.

가. 설교 구성(Organization)

이 부분에는 서론 질문으로 오늘 메시지는 청중의 이목을 충분히 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설교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가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결론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에 나온 사상들을 충분히 요약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성도의 대부분은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성도들의

과반 수 이상은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내용(Content)

내용에 관해서 네 가지 질문들을 하였는데 주제는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인가,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 말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고 있는가, 또한 설교자의 어휘표현은 생생하고 구체적인가, 그리고 단어 선택이 설교의 효율성을 더해 주고 있는가이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지만 이 질문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다.

다. 전달(Delivery)

전달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할 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가와 설교자의 목소리는 경청하기에 편하고 명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보기 좋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설교에 사투리가 많이 섞여 나온다, 설교원고에 매이지 말고 얼굴을 들고 설교했으면 등의 대답이 나왔다.

라. 청중 적응(Audience Adaptation)

청중 적응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였는가, 그리고 설교가 당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반 이상은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었지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았다.

마. 설교자와 청중간의 교감과 일체감

이 부분에는 설교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는가와 설교 중에 나는 설교자와 일체감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다. 그 외에도 설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조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은 설교자에게 격려를 주는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 질문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설문에 대한 조언은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 대답은 설교가 지루하고 단조로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설교를 흥미롭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교자가 원고를 너무 보아서 머리를 숙이고 설

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대답이 있었다. 필자는 원고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 설교원고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횟수가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 좋은 지적이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설교자가 현대 언어보다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 설교에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대답이 있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언어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무엇이 주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설교의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들리는 설교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림언어로 설교하고 전달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청중들의 지적들을 잘 듣고 내 자신의 설교를 보완하여서 좀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끼치고 향상된 좋은 설교를 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성도들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중들의 필요와 아픔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교 시간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삶에 적용되는 예화나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 상담이나, 위기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등에 대한 이론 정립과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아울러 갖추게 되면 설교에 더욱 깊이가 있게 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이중문화권 교회에서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하여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론 부분에서는 이중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범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독특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느 쪽에도 충분히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와 자기 정체감의 상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안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중 문화권 성도들을 목회의 주체로 그리고 설교의 중심대상으로 이해하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고자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란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담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중들의 삶에서 겪는 의심과 염려, 불안과 실패, 좌절과 외로움, 온갖 문제와 갈등, 그리고 우울증 등의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설교는 강해설교와는 달리 청중들의 실제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도입과 과정 보다는 적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대한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화해와 치유, 지탱 그리고 인도 등을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대한 설교의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서신 서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사역 속에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성경적 배경을 찾아보았다.

4장에서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시대가 왜 설교의 위기의 시기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집단으로서의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 회중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소그룹을 통한 포레집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종 문화권의 관점에서 산타마리아 믿음장로교회의 공동체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 준비의 여러 원리들과 전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설교의 원리들을 종합하여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준비와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주제 선정과 본문 선택은 어떤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서론과 결론부분은 어떻게 맺어야 하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꽃이라 부르는 예화사용과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에 대한 평가방법들을 제시하였고 필자의 설문지를 통한 설교의 평가들을 도표화해서 분석해 보았다.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해서 한 설교와 요즈음 청중들의 필요와 상황을 다루는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내용 면에서나 전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요즈음은 설교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설교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평가를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이 평가가 설교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보다 진지하게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설문지로 설교를 평가하다보면 필자의 설교향상은 물론이고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도 높아지리라 기대해 본다.

사실 상담설교라는 말이 지난 90년도에 한국에 소개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상담설교도 일반 설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일반 설교들이 성경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청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설교자가 민감하게 파악하여 상처와 갈등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그 중심을 맞추는데 있다. 즉,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청중들의 실생활에 친숙해져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온갖 종류의 문제를 소유한 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게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견되는 유사상황의 위기들을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얻게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설교가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이다.

설교란 과거에 주어진 본문을 오늘의 신앙공동체인 청중들을 위하여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이다. 설교는 설교를 들어야 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상인 청중이 있다. 설교의 궁극적 대상은 청중이고 설교가 청중을 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청중의 변화이다. 설교가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수준이나 언어가 아닌 청중의 수준과 청중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 말은 청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청중의 문화, 사고방식, 세계관, 습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설교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 설교자가 청중의 필요에 무관심하면, 그는 청중의 필요가 아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설교하게 된다. 설교자는 청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학적인 필요에 대한 공감과 아울러 그러한 현상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말씀연구와 더불어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의 교감과 삶의 나눔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갈등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어 청중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가르침도 대부분 대화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상담하고 가르치셨다. 물론 대중을 향한 설교나 비유의 말씀도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소수의 문제를 지닌 무리에게 더 많이 접근하셨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개인적인 돌봄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더 관심을 가지셨다. 보통 설교는 말씀과 교리에 대해 잘 알면 되지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현대문화를 알아야 하고 성도들의 필요와 상처로 인한 아픔들도 알아야 한다. 즉,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목회자가 상처받고 파손된 인간의 자아를 용서와 화해로 재결합시켜주는 치유의 목적과, 예견되는 모든 상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청중에게 접근하는 것이며, 목회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을 갖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말씀에 대해 균형 잡힌 연구자가 먼저 되지 못하고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상담 이론이나 설교자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담설교자들은 구약의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에스라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고 말하고 있다. 설교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는 꾸준히 땅에서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성도들에 삶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전하고 말씀이 잘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유형은 예수님의 설교이고 상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 하나 하나의 인격과 존엄성을 인정하셨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상처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때로는 내담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그들의 아파하는 말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와 상담에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다.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내담자들을 죄와 죄책에서 해방시켰고, 건전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만들어 주셨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자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상처 많은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 개개인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종문화권 성도들이 대다수인 산타마리

아 믿음 장로교회에서도 설교자가 청중을 더 사랑하고,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이루어 질 때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해 상처받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 가야 하고 어떻게 설교하면 더 효과적인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전에는 설교에 무관심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태의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하고 본문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한계성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섬기는 교회와 같은 이종문화권 교회에서는 앞으로 많이 시도 되어져야 할 설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도들의 필요를 더 알기 위해 내 삶을 열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겨보고자 한다.

부록: 상담설교의 실례

1. 치료적 차원의 상담설교

제목: 고통의 날에 해야 할 생각

본문: 전7:13-14

상황설명: 본 설교는 은 교회 성도들이 슬픔을 당하여 고통하고 있던 주일에 행한 설교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안수집사로, 그리고 건축위원장으로 섬기던 젊은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룬 다음주일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였다. 고통의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도록 권면한 설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꼭 필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꼭 필요한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강석인 집사님을 우리들이 한 해 중에서 제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성탄절 전날 오후, 해가 서산에 지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고통과 수고 다 끝내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언제나 곁에 있으면 든직하고 좋던 그 사람을 황금보석 꾸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사겠습니다. 내 생애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을 다하여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셨던 것이 바로 엇그제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수고 그만하라고 강 집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안 됩니다, 그 가정이나 우리교회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절규하였지만 우

리의 이런 요구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펼쳤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몸의 아픈 것은 돌보지 않고 희생하던 그 사람, 교회 일이라면 언제나 먼저 하려던 그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들로서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 고통의 날에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능력 앞에서 누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항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엡 1장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욥9장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묻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수없이 널린 들풀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왜 그렇게 젊은 시절에 불러 가십니까?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눈물이 있고 염려와 고통이 그칠 날이 없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고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강 집사님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고통의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항상 형통함만 있는 사람도 없고 항상 고통의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고통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병원에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순간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아내와 아이들을 맡기고 교회 건축을 맡기는 그런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포장지일 뿐입니다. 값진 선물일수록 가치 있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멋있고 가치가 있어도 그 받은 선물을 열어 보기 위해서는 포장을 뜯는 수고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포장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싸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땅한 고백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히 2장18절/ 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십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약하여 지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강 집사님은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계획을 저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목사님, 일월 첫째 주간에는 저희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 그 때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고생 많이 했는데 쉬기도 해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 다음에 저는 열흘간 금식기도를 하려고 하는 데요, 기도원을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에 이미 몸의 기능이 약해 있는 그 시간인데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한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예견이나 한 뜻이 자기 성경책에 자신의 필체로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한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가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히 4장 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고통의 순간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 없는 형통함보다도 기도하는 고통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미국 켄터키 감리교회 담임목사였던 데이빗 씨맨즈(David Seamands)박사는 상처 받은 자신의 감정을 치료받기 위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 (1)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 (2)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 (3)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 (4)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5)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씨맨즈 박사 역시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자신이며 기도가 모든 문제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고통의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통의 순간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들로서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게 등불만 들고 기름을 준비치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지혜로

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을 준비하고서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예방차원의 상담설교

제목: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는 하나님(The God who lifts us from the ash of Heap)

본문: 시113편 1-9(Psalms 113: 1-9)

상황설명: 이 설교는 새해를 맞으면서 외국인 남편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신년주일에 행한 설교이다. 비록 우리가 거름더미와 같은 상황에서 살았고 우리들의 자화상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자는 취지로 행한 설교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2006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Hallelujah!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the first month in 2006. Let us praise and worship our living God.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십니까?

What do you first think when the new year comes around?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No matter how much a person plans his life, the bible says that the one who leads the way is God. I believe that God will bless our spirits, our families, and our church this year in which we should be thankful.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라는 말로 끝을 맺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처럼 올 한해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oday's scripture Psalms 113, is a psalm that begins with Hallelujah and ends with a Hallelujah. Like this psalm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is new year, I hope we can live lives that return glory to God.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으로 찬양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If we honestly summarize our spiritual lives in one word, it is to live a life of praising God. This means that not only do we have to praise with our mouths, but we also have to live our whole lives returning glory to God.

1.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1. Then how can we prais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God's loving people can sincerely give God our praise. If we truly love God, our praise automatically comes out from our hearts.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나 자기 남편을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도 모르게 자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귀해지고 귀하니까 자랑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The wife that loves her husband is proud of her husband, and desires other people to compliment her husband. The husband that loves his wife, unknowingly will start bragging about her. Because we love them, they become precious, and because they're precious, compliments and acknowledgement just naturally comes out.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히 그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Likewise, we must have the love of God in our hearts then naturally our hearts will bring forth praise and thanksgiving. Therefore, our congregation who loves God can be able to truly praise him.

2.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하나요?

2. *When should we praise him?*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예배 시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 말했습니다.

The praise we give to God is not only during worship time but it is throughout our lifestyle. In Hebrews 13 vs 15, it says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방면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If we bear fruit with our mouth than in other areas we can bear this wonderful fruit.

성도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만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Congregation, let us pray that during this year, we can vocally praise him and bear lots of fruit.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맺지 않고 찬양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God said that he can know the tree by looking at its fruit that it bears. We must pray that we don't bear fruit of blame and complaints, but rather we bear fruits of praise.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건강해 집니다. 일에 능률이 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도 즐겁지만 남들도 기쁘게 만듭니다.

If we are always thankful and have a heart of praise, then our minds and lives will be changed. If we praise, our hearts become joyful, we will grow in health, and be successful in our work. If we praise God than not only are we thankful

ourselves, but we give joy to others as well.

3.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3 Then who must praise God?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고 했습니다.

In today's scriptures vs 1, it says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praise GOD!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In 1 Peter 2 vs 9, it is written,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찬양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나면 싱글 병글입니다.

In simpler terms, it is saying to live a life of praise. There is a song that says “When praise overflows, our face will lit up with grace.” A person who praises is always joyful.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In verse 2, it tells us to let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both now and forevermore. Praising God is not temporary but we will praise forever.

그리고 3절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Also, in verse 3, it says that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the place where it sets,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raised. God's praise must take place in all places.

여호와와 이름이 온 세계에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The Lord's name must be praised in all the worl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from where the sun rises to where it sets, we must give praises to the name of the Lord.

4.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4. Then why must we praise God?

본문 4,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In today's passage vs 4, it says "The Lord is exalted over all the nations, his glory over all the heavens."

6절에 이와 같은 높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사람과는 얼마나 다른지?

In vs 6, the exalted and high and might God, he willingly stoops down to look on the heavens and the earth"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멸시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If a person thinks that they gained something they become arrogant and suppresses lower (other) people. However, God was above all things and yet he still humbled lowly and did not suppress people.

욥기 36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In Job 36, vs 5, it says "God is mighty, but does not despise men; he is mighty, and firm in his purpose."

그 하나님이 오늘 7,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셨다" 고 했습니다.

If we look in today's passage vs 7,8 it says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eats them with princes, with the princes of their people. "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을 택하여 주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When God looks through the eyes of man, he choses the weak and unble ones to use for his great works.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청년 요셉을 감옥의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는 목동에서 불러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사람 낚은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If we look at the bible, God picked the teenager Joseph from the jails and exalted him with God at his side. God picked David as a humble shepherd and made him great. As Peter was catching fish, he received his calling to be a fisherman of man.

D. L. 무디는 구두수선공을 하다가 부름 받아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D. L. Moody, was a shoemaker when he received his calling to spread the gospel. God truly picks up the weak and embarrasses the strong, he uses the foolish to embarrass the wise people.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Therefore, we must see the law of God and we must realize Gods' love and benevolence.

하나님은 거름 무더기에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높은 자를 낮아지게도 하시며 낮은 자를 높아지게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게도 하십니다.

God lifts us up from the bottom of the pit. He humbles the exalted and exalts the humble. The first becomes last and last will become first.

이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This is so that we won't brag. Therefore, even though if our situation is

hopeless and we're in a tough spot, we must not be disappointed and abandon ourselves in despair.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오면 됩니다.

Today, no matter what kind of tough situation we are spiritually,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You can just come as you are to the Lord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고 하십니다.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satisfy?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오늘 많은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수고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Today Does anyone have anxieties and worries or carry a large burden? It is written that all who are weary and carry a large burden, come to me and I will let you rest.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The solution is to go forward to Jesus. When we go to Jesus, we can lift a large burden off our back.

성도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Congregation! If we go to Jesus then he will do wonderful miracles through us.

찬송가 중에도 “빈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맘을 씻겨 주소서”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There is a praise song that says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Naked come to thee for dress Helpless look to thee for grace," What we must to is come before God

거름 무더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미칠 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Like the poor from the dust and the needy from the ash heap, when God's hand touches us, then our lives will become valuable and a new life will begin.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Mary Magdalene was controlled by seven demons in this world and was betrayed by the world. However, when she met Jesus, she became completely changed and she was used as a valuable person.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에게 가치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as also betrayed by the world. However, when she met Jesus, she transformed into a new life, and as she spread the gospel, she became a valuable woman. There is no worthless person to Jesus.

그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의 손에 잡혀서 가치 있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a worthless rod (staff) goes in God's hand, it becomes valuable. We are all worthless children yet now with God's strength we will be held by God's hand and be used in valuable ways.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Jesus did not come for the righteous but he came for the sinners to repent. He came not for the healthy but to heal the sick.

거름무더기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 주십니다.

Like the ash of heap, even if it may seem hopeless at first, if we feel the touch of his healing hand, then we will not fail. Jesus' touch will give hope to the hopeless.

주님은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God gives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of heap and seats them princes with the princes of people.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We have received salvation from the son of God's blood. Now, our lives have become valuable. We have become valuable lives as we receive God's love. This new position cannot be taken from anyone else. We are always secure.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Loving congregation, Now our lives have become lives that receive God's love. The person who received God's love, have become changed lives. We have become God's children his congregation.

이런 우리는 이제 2006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How must we live this new 2006 year?

거름 무더기에서 묻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벗고 씻어버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In the ashes of heap, we must wash the buried dirty things, and wear the new clothes God has prepared for us. We must live with praise and thanksgiving for our Lord.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We were changed, We became ones who receive God's love, As we are walking together with God, and be congregation members that learn more about our God.

우리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어진 한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In the heap of our life, to the exalted lord as we give our thanksgiving and praise, as we face this new year, we must live for the glory.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2006년 한해는 하나님께 영광돌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ope that these blessings be upon me and you as we meet this new year 2006, and as we return God's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도서출판 예인, 1996.
- 구현정, 대화의 기법. 서울: 한국 문화사, 1997.
- 김광락, 본질목회로 돌아가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 김만홍, 전인구원/전인치료/전인성장을 위한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5.
- 김영임,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2001.
- 김영환,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 신학.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 김예식, 생각 바꾸기를 통한 우울증 치료.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8.
-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 가정 상담 연구소, 2004.
- 남세진, 조홍식, 집단지도 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맹용길, 생명의료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0.
-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 1997.
-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 송기태, 평신도의 설교태도 분석(II). 서울: 목회와 신학, 1991.
- 송길원, 제5집 가정문제 자료집. 고양 일산: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1997.
- 신국원, 포스터모더니즘. 서울: IVP, 2000.
- 안병만, 존 스토틀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셋트, 2001.
- 안도현, 우울증 죽음으로 향하는 다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도서출판 경문사, 1995.
-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4.
- 이규환,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1984.
- 이동원, 청증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 설교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정근두, *로이드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론, 1994
- 정성구, *설교학개론*, 서울: 세종 문화사, 1983.
- 정장복, *설교전달의 클리닉*,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0.
- 조신영,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서울: 한스 미디어, 2004
- 주승증,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정장복(편), 제2회 설교클리닉 세미필자, 서울: 장신대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연구원, 2003.
- 최인식,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최한구,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1.
-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설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 번역 서적

- Achternier, Elizabeth, *창조적 설교(Creative Preaching)*, 이희숙 역, 서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2.
- Adams, Jay,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A Consumer's Guide To Preaching)*, 김성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Baumann, Daniel J, *현대 설교학 입문(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Bell, Daniel,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The Winding Passage)*, 서규환 역, 서울: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2.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역, 서울: 두란노, 1998.
- Blackwood, Andrew W, *현대인을 위한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For Today)*, 양낙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Blanchard, Ken, Thad Lacinak, Chuck Tompkins, and Jim Ballard,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Whale Done!)*, 조천제 역, 서울: 21세기 북스, 2002.
- Braga, James, *설교 준비(How to Prepare Bible Messages)*,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Buttrick, David,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 Preaching*). 서울: 요단출판사, 2002년.
- Capps, Donald. *목회상담과 설교(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 Cialdini, Robert B. *설득의 심리학(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이현우 역. 서울: 21세기 북스, 2002.
- Cloud, Henry, and John Townsend. *울타리(Boundaries)*. 신현복 역. 서울: 도서출판 아침, 1999.
- Clinebell, Howard J. *목회상담신론(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_____. *목회와 지역사회(Pastor and Parish)*.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Collins, Gary R. *효과적인 상담(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72.
- Crabb, Lawrence J. Jr. *성경적 상담학(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 Crabb, Lawrence J., and Dan B. Allender. *격려 상담(The Key To Caring)*. 오현미, 이용복 공역. 서울: 나침반사, 1986.
- Craddock, Fred B. *설교(Preaching)*. 김영일 역. 서울: 컨콜리아사, 1989.
- Craft, Charles H.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Deep Wounds Deep Healing)*. 이윤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 Dane, James. *능력있는 설교*. 이태웅,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0.
- Florence, Littauer. *기질 플러스(Personality Plus)*. 정숙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Flynn, Mike, and Doug Gregg. *내적치유와 영적성숙(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IVP, 1995.
- Harley, Willard F. *러브 버스터(Love Busters)*.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 Hart, Archibald D.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Mind)*. 윤후남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_____. *우울증 상담(Counseling the Depressed)*. 심상권 역. 서울: 두란노, 1995.

- _____, *우물증,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Dark Clouds Silver Linings)*, 정동섭 역, 서울: 요단, 2004.
- Henrichsen, Walter, and Gayle Jackson, *성경 어떻게 적용할까?(A Layman's guide to Applying the Bible)*, 정병길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0.
-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하 외 3인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1996.
- Hiltner, Seward, *목회신학원론(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8.
- Hurding, Roger, *치유나무(Roots and Shoots)*, 김예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Hybels, Bill, *현대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햇볕, 1993.
- Hybels, Bill & Lynn,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Fit To Be Tied)*, 백준호 역, 서울: 도서출판 바울, 1995.
- Jones, D. M. Lloyd, *목사와 설교(Preaching & Preacher)*, 서문강 역,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7.
- Jones, Ilion T., *설교의 원리와 실제(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Jones, Stanton L., and Richard E. Butman, *현대 심리치료법(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 LaHaye, Tim, *성령과 기질(Spirit Controlled Temperament)*, 생명의 말씀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1.
- Lane, Danis, *강해설교 자료모음*, 양성현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5.
- Larson, Craig B., *목사의 눈물(Pastoral Grit)*, 김동완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 Leste, Andrew D., *희망의 목회상담(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신현복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1997.
- Long, Thomas, *증언으로서의 설교(The Witness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쿤란출판사, 1998.
- _____,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 박영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MacArthur, John Jr. *강해설교의 재발견(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MacDonald, Gordon.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IVP, 1990.
- Nouwen, Henri J. *상처 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 Pennington, Chestee. *말씀의 커뮤니케이션(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Piper, John.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 하십니까?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5.
- Quran, Dololis.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Traits of a Healthy Family)*, 최도형 역, 서울: 엘맨, 1994.
- Rekers, George A. *가정 상담(Counseling Families)*, 오성춘 역, 서울: 두란노, 1995.
- Robinson, Haddon W. *강해설교(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9.
- _____ *성경적인 설교(Biblical Sermons)*,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 Robinson, Haddon W. *외 10인, 확신에 이르게 하는 설교*, 김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햇볕, 1996.
- Schaeffer, Edith. *가정이란 무엇인가?(What Is A Family?)*,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Seamands, David A. *좌절된 꿈의 치유(Living With Your Dreams)*,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 1996.
- Sell, Charles M. *가정 사역(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Sledge, Tim. *가족치유 마음치유(Making Peace with Your Past)*,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Stone, Howart W. *해결중심 목회상담(Brief Pastoral Counseling)*. 정희성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Sttot, John. *설교자상(The Preacher's Portrait)*. 문창수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_____. *현대교회와 설교(Between Two World)*.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2.
- Swihart, Judson J., & Gerald D. Richardson. *위기 상담(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정태기 역. 서울: 두란노, 1995.
- Walters, Richard P. *자기통제(Counseling For Problems Of Self-Control)*.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5.
- Webber, Robert E.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God Still Speaks)*. 정장복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4.
- Wheat, Ed.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Love Life For Every Married Couple)*.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Wiersbe, Warren W. 외. *심령을 꿰뚫는 설교를 합시다*. 서울: 나침반, 1996.
- Wilson, Rod. *상담과 공동체(Couseling And Community)*. 김창대 역. 서울: 두란노, 1997.
- Wright, H. Norman. *여성을 위한 카운슬링(Questions Women Ask In Private)*.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_____. *결혼 생활의 열쇠-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The Key to Your Marriage)*.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 Wright, H. Norman, and Gary J. Oliver.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How to Bring Out the Best In Your Spouse)*.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1999.

Vita of
Paul Chulhong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at Faith Korean Church of Santa Maria

Personal Data:

Birth date: July 20, 1957
 Marit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1240 W. Bethel Ln, APT # 5B,
 Santa Maria, CA 93458
 Phones: 805) 922-4932; 260-1233
 Denomination: CRC
 Ordained: October, 1992

Education:

B. A. Han Yang University, Seoul, Korea
 M. 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Personal Experience:

2003 - Present Senior Pastor of Faith Korean Church, Santa
 Maria, CA
 2001 - 2003 Assistant Pastor of Hebron Presbyterian
 Church, Chicago, IL
 1999 - 2001 Senior Pastor of Peniel Presbyterian Church,
 Chicago, IL
 1996 - 1999 Senior Pastor of The First Presbyterian

1993 - 1996 Church, St. Louis
Assistant Pastor of Cherry Hill Presbyterian
Church, New Jersey (1993-1996)